성막과 절기 강해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다운로드 자료실, 성막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총판)
참고 교재: 성막(디한 지음, 생명의 말씀사), 성막에 나타난 예표와 실체(니드햄, 기독교문서선교회), 황금집(Rouw 지음, 전도 출판사),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에프 지음, 바울서신사)

0. 예배(Worship)와 대신 속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이유(엡1:4-6; 계4:11)
 사람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다. 에덴 동산, 죄, 타락, 교제의 중단
 교제의 복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계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속죄의 교리(창3:21; 4:3-4; 8:20-21; 22:1-18; 히9:22; 히11:4)
 외울 구절: 히9:22

1. 성막(Tabernacle): 출24:12-18; 25:1-9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디서 그분께 예배할 것인가?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막과 절기 강해 제2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다. 에덴동산, 아담과 이브, 사탄, 죄, 타락, 피의 속죄, 짐승 제물(창 8:20-21)
성막은 희생 예물, 용서, 교제를 위한 장소이다.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출25:1-2; 8-9).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다(출25:22).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시였다.
성막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가 드러난 장소이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은 성도의 모형이다.
사람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성막에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약 500년 동안 존재함.
성막은 눈의 복음이다(the gospel of eyes)
성막의 특징:

1) 성막에 사용된 재료는 금=3톤, 은=4-5톤, 동=4톤, 기타 보석, 재목 등을 합하여 엄청난 액수이다(약 7조원).
2) 염색 재료로는 조개 종류(파란색), 달팽이(보라색), 오소리 가죽 등
3) 수천 명의 레위 사람이 필요했다.
4) 45m X 22.5m(100큐빗, 50큐빗), 축구장 105m X 66m
5) 시팀 나무(아카시아 계열)의 가시들
6) 번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타 오름(레6:12-13)
7) 특이한 향(출30:22-38), 오늘날의 아로마 테라피
8) 대제사장의 옷에는 보석들이 달려서 매우 무거웠다(출28).
9) 이런 시청각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
10) 언약궤를 잃어버림
11) 성막의 희생 예물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새 언약(렘31:31-34, 히8).
12)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갈 것을 보여 준다.

2. 구약에 나타난 성막의 연구가 왜 중요한가?

1) 성막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다.
출애굽기 13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히브리서 4장 (합계=50장)
단일 주제로는 이것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없다.
2) 모세가 40주야를 시내 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관한 양식을 계시해 주셨다.
3) 성막은 장차 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다(히8:1-5).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중요한 시청각 자료이다.

3. 성막의 용도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이다(출29:45-46).
2)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출25:8).
3)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이다(출25:22).
4)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레1:1; 출29:42).
5)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레1:4; 4:20).
6)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주신다(출28:38).

한 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이다. 즉 예배의 장소이다.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며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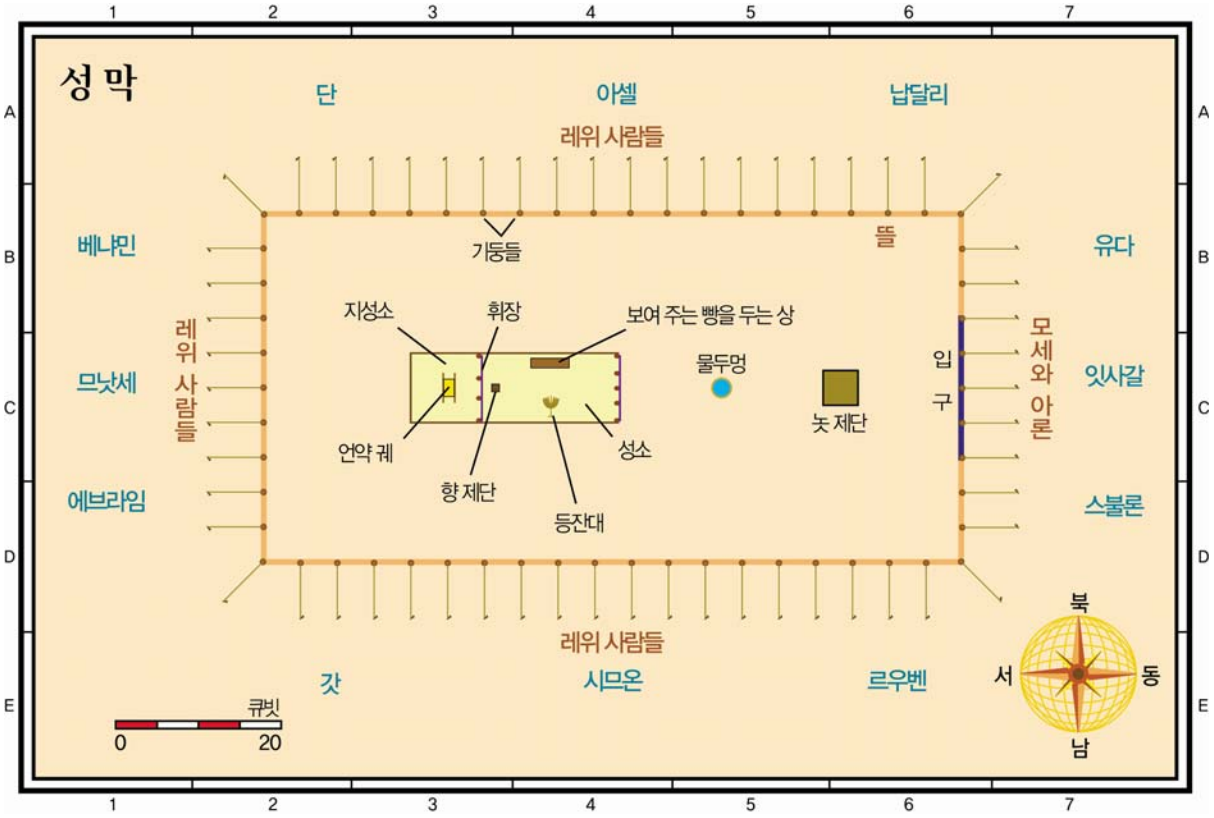
4. 성막 개념의 발전(예배와 교제)

1) 최초의 성소=에덴동산
2) 두 번째 성소=광야의 성막
3) 세 번째 성소=지상 성전(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4) 네 번째 성소=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5) 다섯 번째 성소=신자의 몸(고전3:16)
6) 여섯 번째 성소=환난기의 성전(마24:15; 단9:26-27; 계11:1-2)
7) 일곱 번째 성소=천년왕국 성전(겔40-48)
8) 마지막 성소=천국에 있는 것(고후5:1; 계11:19)

5. 성막 건축 과정

1) 성막을 위한 헌물=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 준다.
a.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출35:21).
b. 하나님의 일에 모두 동참하였다(출35:22-28).
c.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바쳤다(출36:2-7).
d.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였다(다윗의 성전 건축 헌물 예비 대상29:9-14).
2)성막 건축
a.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예비하셨다(출31:1-5).
b. 하나님은 건축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
3) 성막을 세움: 정월 초하루에 세움(출40:1-2)=유월절의 의미(출12:1-2)
4) 성막의 봉헌
a. 성막 봉헌을 위한 준비 규례(출40:1-16)
b. 성막의 완공(출40:17-33)
c.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출40:34-38).

성막과 절기 강해 제3과



6. 성막의 구성

1) 성막 울타리 밖(민3장)

민1:1(출40:1,2)

인구 조사: 20세 이상(민1)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퍼져 진을 쳤다.

a. 동편: (모세, 아론)=유다 진영 - 유다(74600), 잇사갈(54,400) 스불론(57,400)= 총186,400명

b. 서편: (게르손)=에브라임 진영 - 에브라임(40,500), 므낫세(35,400), 베냐민(35,400)= 총108,100명

c. 남편: (고핫)=르우벤 진영 - 르우벤(46,500), 시므온(59,300), 갓(45,600)= 총151,450명

d. 북편: (므라리)=단 진영 - 단(62,700), 아셀(41,500), 납달리(53,400)= 총157,600명

총합계=603,500명(민2:32)

레위 사람들(민1:48-54)

아론의 아들들(민3:1-4)과 레위 사람들(민3:5-13)

레위 사람 인구 조사: 난 달이 넘은 자들, 22,000명(민3:39)

처음 난 자 계수(40-43), 22,273명(민3:43)

273명은 대속함, 오 세겔씩 취하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첫째 줄의 천막들은 레위 족속에 속해 있었다.

동쪽에 있는 문 앞 - 모세의 천막과 제사장들의 천막

남쪽 - 고핫 자손(레위의 한 지파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관장함: 언약궤, 빵 진열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의 기구들 등, 민3:29-32)

서쪽 - 게르손 자손(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막의 문과 뜰의 휘장 등, 민3:25-26)

북쪽 - 므라리 자손(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록 막대기들, 기둥들과 그 받침들 등, 민3:36-38).

삼십 세 이상 된 8,580명의 장정들로 구성된 레위 족속은 성막과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보관하였다. 저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민3:9).

레위 자손의 진 훨씬 바깥에 열두 지파가 진을 쳤다. 요셉 지파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다. 열두 지파는 사대(四隊)로 형성되었고 각 대에는 세 지파가 있었으며 거기에는 대장과 군기가 있었다.
동쪽 - 유다의 진(유다, 잇사갈, 스불론)
남쪽 - 르우벤의 진(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 - 에브라임의 진(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북쪽 - 단의 진(단, 납달리, 아셀)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뜨거운 사막의 태양 광선에서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시105:39).

2) 성막 안 구분
a. 성막의 뜰 - 번제단(놋 제단), 물두멍
b. 성소 - 빵 진열 상, 금 등잔대, 향 제단
c. 지성소 - 언약궤, 긍휼의 자리(속죄소, 시은좌)
3) 사역자들
a. 대제사장
b. 제사장
c.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

7. 성막의 모형
1)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눅24:27)
요1:14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dwell)라는 말의 원어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tabernacle)라는 뜻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셨다.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감쌌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름같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었다. 성막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몸이다(히8:5; 10:1; 골2:16-17).

성막과 절기 강해 제4과

7. 성막의 모형

1)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눅24:27)

계속 설명

히9, 10장 설명

이스라엘의 속죄는 오직 성막의 제단 한곳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일하다(레17:3,4).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속죄 방법이 없다(요14:6; 행4:12).

그러므로 성막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게 된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

특히 성막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된다.

성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1) 만남의 장소(고후5:18): 만나서 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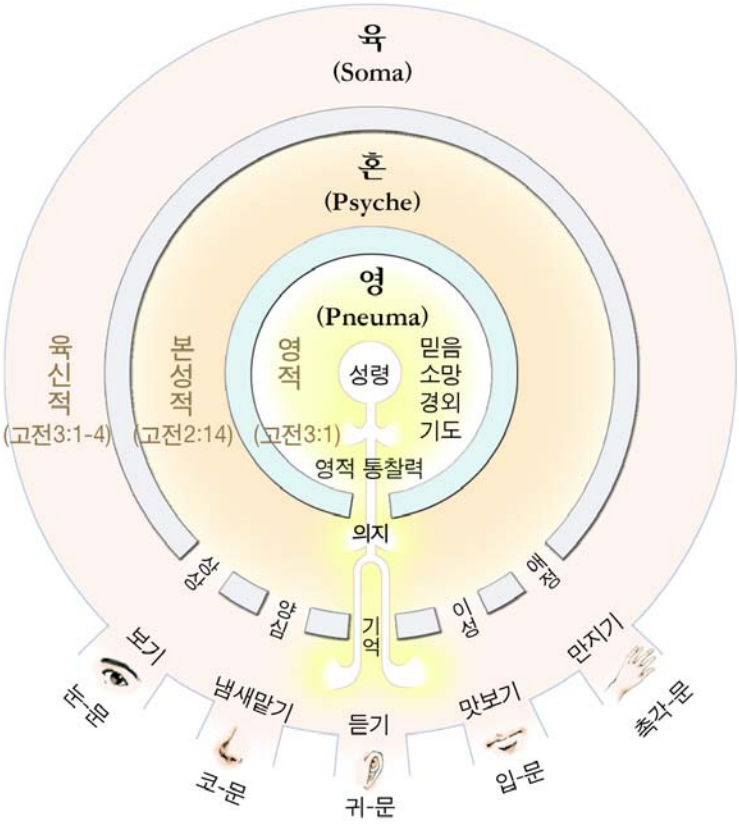
(2) 거하는 장소(골2:9):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3) 계시하시는 장소(요1:18), 롬3:26

2) 구원의 모형

3) 교회의 모형: 고후5:1; 6:16; 19

4) 사람의 모형: 살전5:23


육
(Soma)
혼
(Psyche)
영
(Pneuma)
육신적
(고전3:1-4)
본성적
(고전2:14)
영적
(고전3:1)
성령
믿음
소망
경외
기도
영적 통찰력
의지
상상
양심
기억
이성
해석
보기
냄새맡기
듣기
맛보기
만지기
눈-문
코-문
귀-문
입-문
촉각-문

성막과 절기 강해 제5과

8. 성막의 설계

1)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출25:8-9).

2) 하나님이 지시하신대로 세워졌다(출25:8-9; 26:30; 행7:44; 히8:5).

3)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 산에서 갈보리로, 그들 자신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그들 자신이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사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다.

9.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

1) 성막(tabernacle).....출25:9, 26:1 등

성경에는 성막에 관한 명칭이 10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인 명칭은 성막(미쉬칸, 스트롱 번호 4908, 출25:9)이다. 미쉬칸은 거처(tabernacle, dwelling place, residence 등)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139번 정도 나온다.

2) 장막(tent).....출26:11, 36; 35:11 등

장막(오헬, 스트롱 번호 168)은 98회 나온다. 이는 성막의 겉모습이 텐트와 같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다. 원어 오헬은 '덮는 것'을 뜻한 다.

3) 성소(sanctuary).....출25:8; 36:1

성소(미크다쉬, 스트롱 번호 4720) 거룩히 구별된 곳, 출15:17

4) 회중의 성막(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레1:1)

기본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다. 출33:7-10 설명

5) 증언의 성막(tabernacle of testimony).....증언을 담은 장막(출38:21)

6) 주의 집(the house of the LORD).....(출34:26; 수6:24; 삼상1:7, 24)

7) 증거의 성막(tabernacle of witness).....증거의 성막(민17:7, 8; 대하24:6)

이 외에 성막은 '하나님의 집'(삿18:31)이란 불린다: 가나안 입성 후부터

주의 전(temple of the LORD): 삼상3:3, 아직 완전한 성전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히9:1)

10. 성막의 재료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생각하려면 먼저 성막의 재료들의 종류와 출처, 성막을 만든 인물들을 알아보고 끝으로 그 제조한 성막의 구조를 알아볼 것이다(출애굽기 25장과 35-36장).

1. 성막의 재료들(종류)

성막의 재료들은 출애굽기 25장 3-7절과 출애굽기 35장 5-9절에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이요,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명령대로 성막의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것이다(출35:20-29).

a) 귀금속: 금, 은, 놋이다(출25:3; 35:5).

b) 유색면사: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등이다(출25:4; 35:6).

c) 피혁류: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오소리 가죽 등이다(출25:4-5; 35:6-7).

d) 재목: 시팀나무(출25:5; 35:7).

e) 향품류: 등잔 기름, 관유(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료(출25:6; 35:8).

f) 보석류: 줄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다(출25:7; 35:9). 이 보석들은 출39:10-13에 보면 12 종류의 보석들이다.

백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출35장 22절 이하).

a) 금속류: 팔찌, 귀고리, 반지, 납작한 보석, 여러 가지 금 보석, 금 예물(출35:22).

b) 유색면사: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등이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부녀자들이 손수 만들어 드린 것들이다(출35:23).

c) 피혁류: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 등이다(출35:23). 이것들은 자기들이 광야 생활에서 사용할 것을 사용치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d) 목재류: 시팀나무(출35:24). 이 시팀나무는 이스라엘에 백성이 광야에서 다시 구하기 어려운 목재들이다.

e) 보석류: 줄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다(출35:27). 이것들은 값 비싸고 귀중한 것들이다.

f) 향품류: 등유,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요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출 35:28).

출애굽기 38장 24-31절에 나타난 총계:
금 29 달란트와 730 세겔이며, 은은 100 달란트와 1,755세겔이고 놋은 70 달란트와 2400세겔

우리들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 드리게 하신다는 것이다(빌2:13).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이적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오병이어 등).

2. 재료들의 출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료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그것들이 성막의 재료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그 재료들은 어디서 받은 것인가? 그것들은 이집트에서 얻은 것이다(출11:2; 12:35).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의 주인인 것을 알아 기꺼이 바쳤고 믿음에 근거하여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드렸다.
(1) 주님의 헌물이다.
나의 헌물(출25:2; 35:5, 21)
(2) 자원 헌물
자원 헌물(출25:2; 35:5, 21-22; 고후 9:7)

11.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
위에 열거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은 두 종류였다: 유명한 인물들과 무명한 인물들이다.
(1) 유명한 인물
유명한 인물들은 브살렐엘(출35:30)과 아홀리압이다(출35:34).
이들의 특징(출36:1): (1)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람, (2) 재능과 기술의 사람, (3) 순종의 사람
(2) 무명한 인물들
이 둘 외에 많은 기능공들이 있었다(출36:2, 8)
책임자와 그들을 도운 사람들

성막과 절기 강해 제6과

12. 성막의 기구들(출25:10-40).

(1) 증언 궤(출25:10-16)

이것은 네모지게 만들었다.

길이는 2큐빗 반(112cm), 너비와 높이는 각각 1큐빗 반(68cm)이었다. 이 궤는 시팀나무 안과 밖을 순금으로 입혔다.

위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귀퉁이에 달았다(이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막대들을 궤 양편 고리에 넣어 궤를 날랐다.

그 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출16:33)와 십계명의 두 돌 판을 넣었다(출25:16; 40:20).

그 두 돌 판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출24:12)이며 언약의 말씀들(출34:27-28; 신4:13; 10:1-2), 언약의 두 돌 판(신9:9-15)이라고도 한다. 또 그 후에는 궤 속에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넣었다(민17:10).

(2) 긍휼의 자리, 속죄소, 시은좌(출25:17-22)

긍휼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카포로서 그 뜻은 '덮는다'이다. 창세기 3장의 짐승의 가죽 옷

그와 같이 덮거나, 가린다는 말이 후에는 '속죄한다'로 되었다.

긍휼의 자리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길이가 2큐빗 반, 너비는 1큐빗 반이었다.

긍휼의 자리의 양 끝에는 순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연하여 있게 했다. 그 그룹들은 두 날개들을 펴서 긍휼의 자리를 덮었다. 그 그룹들은 얼굴을 긍휼의 자리를 향하게 하였다. 그 그룹의 형상은 사람, 사자,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이었고(겔1:6). 그룹은 천상의 존재들 중의 한 종류였다(창3:24).

(3) 빵 진열 상(출25:23-30)

이상은 시팀나무 나무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2큐빗(90cm), 높이가 1큐빗 반(68cm), 너비가 1큐빗(45cm)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는 항상 12덩어리의 빵이 놓여 있었다. 그 빵은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 구운 것으로 매 안식일에 새것으로 갈아놓았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사면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네 모퉁이에 달고, 금으로 싼 시팀나무 막대로 꿰어 메게 했다(출25:24-28). 또 정금으로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을 만들었다(출25:29-30).

(4) 등잔대(출25:31-40)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밑판에 대가 있었고 그 대에는 가지 여섯이 있었다. 각 가지 끝은 꽃 형상으로 되었다. 셋은 이편으로 셋은 저편으로 향하여 총 일곱 개의 등잔이 있었다.

스가랴서 4장 2-3절을 보면 등잔대 좌우에 올리브나무가 있어 기름을 공급했다.

또 부집게들과 불똥 그릇들

등잔대 관리(출27:20-21). 이것은 등불을 황혼부터 아침까지의 어두운 동안 밝힐 것을 말한다. 곧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았음을 말한다.

(5) 분향 제단(출30:1-3)

분향 제단도 시팀나무로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1큐빗(45cm), 높이는 2큐빗이었다.

분향 제단은 위와 사방 옆면, 네 뿔을 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고리 네 개를 만들어 막대에 꿰게 했다. 그 막대는 금으로 입혔다.

아론이 1년에 1차례 분향 제단 뿔을 위하여 죄 헌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하게 되었다.

(6) 놋 제단(출27:1-8)

이 단은 다른 단과 특이하다. 다른 단과 특이한 것은 놋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 놋 제단이라고 한다. 그것은 물론 시팀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를 놋으로 입혔다. 길이와 너비는 5큐빗, 높이는 3큐빗이며 네 모퉁이에 각각 뿔이 있었다.

또 그 단에 부속된 기구들인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을 놋으로 만들었다. 단 중앙에 그물을 만들되 고리 넷을 만들어 막대로 운반하게 하였다. 막대는 시팀나무를 놋으로 쌌다. 이 제단은 제단에 드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단이다.

(7) 물두멍(출30:17-21)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다. 이것은 전체가 놋으로 되어 있고 밭침도 놋이었다. 그곳에 물을 담아서 성소 앞에 놓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성소의 지성소를 출입하기 전후에 수족을 씻게 하였다. 만약에 여기서 수족을 씻지 않고 출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었다(출38장 8절).

성막과 절기 강해 제7과

(*) 출33:7-11 다시 설명

24장 끝 부분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감. 성막 규정을 받음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규정, 시내 산에서 내려옴(32장, 금송아지)

33장, 주님의 경고, 33:7-11 설명, 34장 새 돌판, 35장에서 드디어 성막 헌물을 받고 만들기 시작함

(8) 밑받침(출26:19-25; 38:27)

100개의 은 받침: 남쪽에 40개(18-19), 북쪽에 40개(20-21), 서쪽에 16개(25절), 4개(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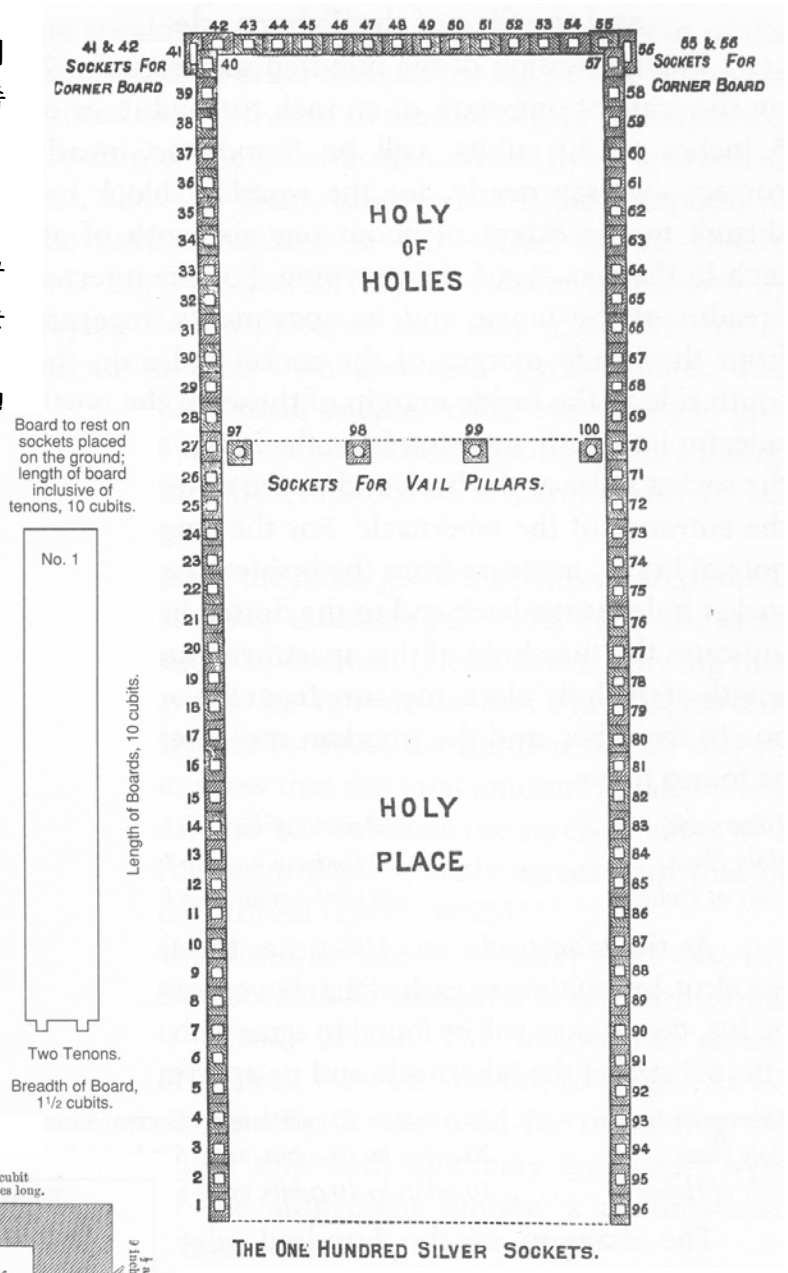
(9) 널빤지(출26:15-30).

널빤지는 시팀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다. 그 널빤지의 길이는 10큐빗, 너비는 1큐빗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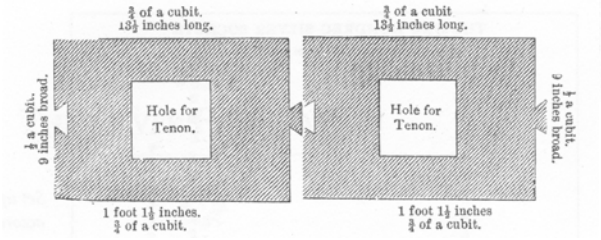
각 널빤지에 두 촉을 내어 서로 연결되게 하였다. 성막의 남편을 위해 20개를 만들고 그 널빤지들 아래에 은으로 만든 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의 두 촉을 거기에 끼웠다. 북편에도 남편과 동일하게 했다. 성막 서편을 위하여 널빤지 여섯을 만들고 성막의 두 모퉁이를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총 48개를 만들었다.

또 시팀나무로 성막의 가로막대기를 만들되 금으로 입힌다(26-29절). 5개, 5개, 5개

가로막대기를 둘 금 고리들



THE ONE HUNDRED SILVER SOCKETS.



TO ILLUSTRATE OUR OWN CONJECTURE.

Section of the six west-end boards, the two corner or angular boards, and the westmost south and north side boards.

Corner	Board.	1	2	3	4	5	6	Corner	Board.
South-side B.	½ cubit.	1½ cubits.	1½ cubits.	1½ cubits.	1½ cubits.	1½ cubits.	1½ cubits.	½ cubit.	North-side B.

Internal breadth, 10 cubits.

Scale—½ inch to a cubit.

FROM MODEL TABERNACLE.

(10) 성막(출26:1-6)
성막은 전체를 10개의 앙장으로 만들었다. 성소와 지성소: 10 X 10 X 30 큐빗
한 앙장의 길이는 28큐빗, 너비는 4큐빗
다섯 앙장을 서로 연결함, 두 개가 한 성막이 되게 함.
그 마지막 앙장끝단에 청색 고리 50개를 만들고 고리 50개를 만들며 50개의 금 걸쇠를 만들어 두 개를 서로 연결하여 한 성막이 되게 했다.

(11) 덮는 막(출26:7-14).
덮는 막은 성막을 덮는 막이다. 이 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다. 그것은 염소 털로 만들되 11개 앙장으로 만들었다. 각 앙장의 길이는 삼십 큐빗, 너비는 사 큐빗이었다. 다섯 앙장과 여섯 앙장을 연결했다. 고리 50개씩, 놋 걸쇠 50개

또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어 덮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웠다. 그러므로 덮개 막은 3중으로 되어 있었다.

(12) 휘장(출26:31-37).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막는 휘장으로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게 했다.(10 큐빗, 10큐빗) 그 안 휘장은 시팀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금 갈고리에 꿰어 달았다. 이 네 기둥은 네 은 밑받침 위에 두게 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간 곳이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때에만 대제사장에 의하여 걷혔다가 다시 닫혔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통하게 되었다(마27:45-52).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휘장이 제거되고 없다. 예수님 자신이 베일이시다(히10:19-20)

(13) 성막의 뜰, 문(출27:9-19).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마당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 뜰의 남편 길이가 100큐빗(45미터)으로(9절) 그 길이의 아마포 현수막을 치게 했다. 그 현수막의 기둥이 20개요. 놋 받침이 20개였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띠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편도 남편과 동일하였다. 서편에는 길이가 50큐빗의 현수막을 치게 하되 기둥이 10개이고, 놋 받침도 10개였으며 동편도 마찬가지로 50큐빗의 현수막이 기둥 셋과 놋 받침에 걸쳐 있었다. 뜰 문 이편(왼쪽)에 15큐빗의 현수막이 기둥 셋과 놋 받침에 걸쳐 있었고, 뜰 문 저편(오른쪽)에도 이편과 같이 되어 있었다. 뜰 문을 위해 청색, 자주색, 주홍색과 가는 아마실로 수를 놓아 짠 현수막이 있었다(길이가 20큐빗, 기둥이 4개, 놋 받침이 4개). 모든 기둥의 띠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아마포 현수막의 높이는 5큐빗이었다(18절). 그리고 이 안 뜰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놋으로 만들어졌다(19절). 이 안 마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였으며, 또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 제사드릴 자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14) 성막 봉사자의 의상

제사장 직을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제복으로 이 제복을 입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제사도 드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기 때문이다. 고로 그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고야 백성을 위한 제사나, 백성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제복은 귀중하고 큰 뜻이 있다. 그 뜻에 대하여는 후에 생각하겠다.

대제사장의 제복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것과 머리에 쓰고 있던 것들을 모두 합하여 일곱 가지이다(28:4).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수이다.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a) 속옷(하체를 가리는 것, tunic, 출28:39)
이 속옷은 대제사장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입었다(출39:27). 그 재료는 고운 아마로 수를 놓은 것이다(출28:39). 그는 아마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껴야 했다.
b) 긴 옷(겉옷, Robe, 출28:32-34).
c) 에봇(출28:4-12)
에봇은 긴 앞치마와 같이 생겼으며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그것을 입었다.
d) 흉패(출28:15-30)
열두 보석(열두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의미함).
e) 허리띠(출28:39-40)
f) 금패(출28:36), 주께 거룩한 것,(레8:9).
g) 관(출28:4; 39)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다.

향로(레16:12, 13)

대제사장(히7:25): 히브리서 5, 7장 설명

성막과 절기 강해 제4과

성막의 역사적 변화

성막의 이동 상황과 그 성막의 외형적인 변화와 성막의 기구들의 변화

(1) 시내 산에서의 성막(출애굽, 가나안 정복 지도 참조)
출19:1-2,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출40:2, 17,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 시내 산 밑에서 성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할 때는 언약 궤와 성막과 그것에 속한 부속품들과 기구들을 정리하여 레위 사람들이 메고 여행했다(민4). 이때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분해하여 가지고 운반했다(민3-4장). 그 외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부분도 있었다(민7:1-11).
성막이 세어진 후에 이스라엘이 시내 산 밑에 정주한 기간
민10:11-12, 출애굽 후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이 이동해서 출발함.
성막은 제2년 1월 1일에 제조됨. 그러므로 처음에 성막은 약 50일 동안 정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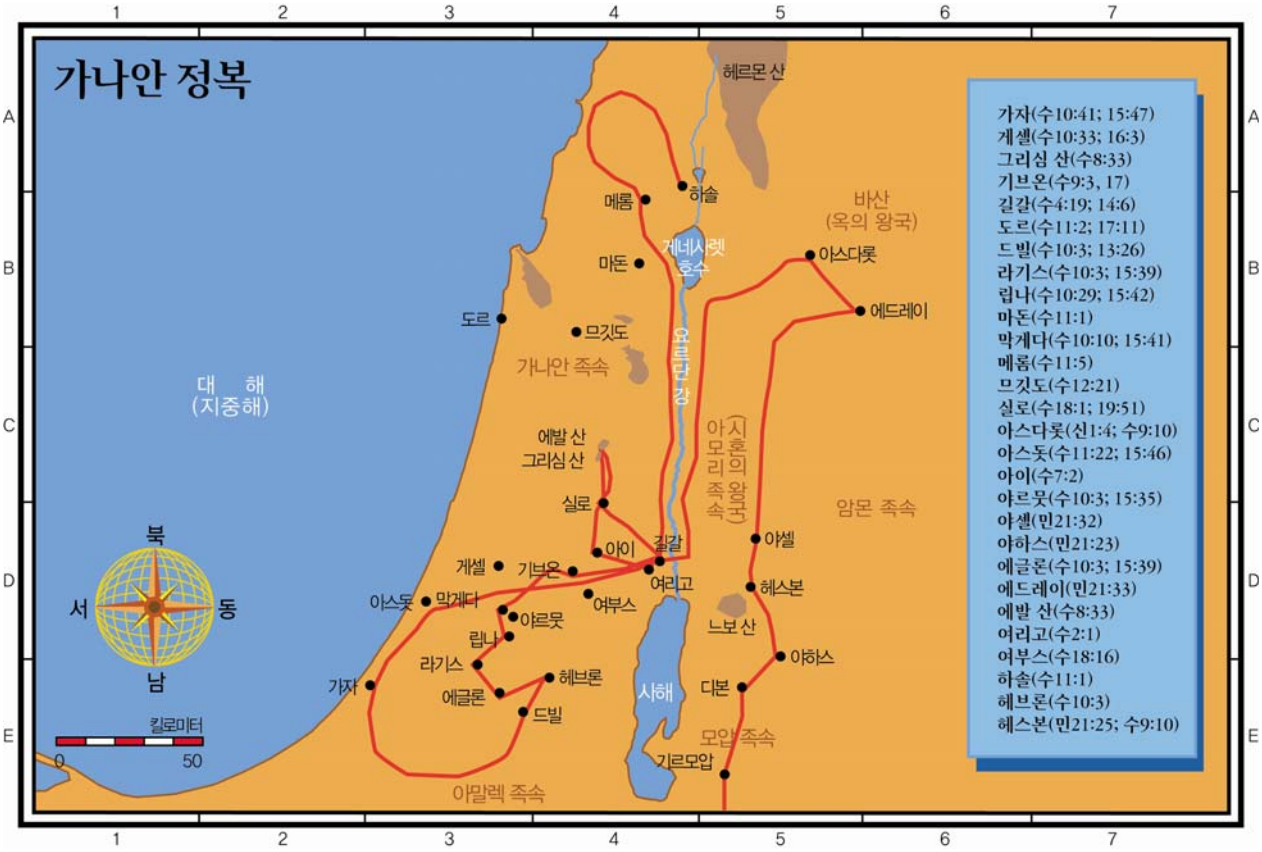
(2) 가데스바네아에서 머묾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은 거기에서 시작되어 아라비아의 중심지인 호렙과 유다의 네게브(남쪽)에 있는 가데스바네아를 사이에 두고 무섭고 험한 광야를 따라 나아갔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그들이 여행할 때 통과한 지명과 기한은 민수기 33장 16-49절에 기록되어 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세월이 걸렸다(신2:14).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세일 산 근처에서 보냈다(신2:1). 그때 성막은 37년간 여기에서 배회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 정규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암5:25).
그 이유(민10:33-36), 첫째, 하나님께서 행진하였고, 둘째, 대적들과 전쟁 중에 있었고, 끝으로, 성막을 정상적으로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3)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르단을 건넜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막 안치 장소이다.
그 장소는 (1) 사람들이 살지 않고, (2) 가능한 한 사람의 무덤들로부터 떨어진 곳이라야 하는데 이런 곳은 여리고 근처였다. 그래서 최초의 성막 안치 장소는 길갈로 알려진 곳이다(수4:19; 5:10; 9:6; 10:6). 길갈은 임시 장소였다(성막과 길갈이 연결된 구절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마침내 성막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장소는 에브라임 영지에 있는 실로로 정하여졌다. 성막이 그곳에 세워진 때는 여호수아 당시로 알려져 있다. 그곳은 길갈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이다. 즉 성막은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하였다(수18:1; 19:51). 이곳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년의 세 명절에 오기가 좋은 곳이었다(삿18:31 참조).
실로에 있을 때 성막은 성전(Temple)이라 불리기도 했다(삼상1:9; 3:3).
이때까지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는 별 변동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나 성막이 분해되고 제단이 새로 건립이 되었다. 이때에 실로에는 주의 성막이 있었다(삿21:19).

(4) 실로의 멸망
이스라엘은 재판관(사사) 시대 초기에 가졌던 명성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 사무엘기 초기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심히 파격적이었다. 그들은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언약궤를 옮겨다 놓았고(삼상4:1)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언약 궤와 같이 전장에 나아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 궤와 같이 계시고, 언약 궤가 움직이는 곳으로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의 신앙 무장과 정신적인 사기의 진작을 위한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 궤에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사기는 무용했고 그들의 기대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 궤를 섬기던 두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앞에서 아무 도움이 없이 패하고 말았다. 실로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 밑에서 망한 것이 확실하다. 실로의 파괴는 역사가 암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시78:60; 렘7:12). 그러나 성막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 같으며 후에 언약 궤와 성막은 놉에서 다시 만난다(삼상21:1-6).

이집트 탈출(출애굽)
대 해
(지중해)
나일강
삼각주
타니스
칸티르
아바리스
운하
딤사 호수
숙곳
에담
쓴물 호수
투밀랏와디
고센
온(헬리오폴리스)
멤피스
모에리스 호수
이 집 트
미스라임
에 담 광 야
마라
엘림
돕가
수에즈 만
신(Zin)광야
가데스바네아
수 르 광 야
호르 산
바 란 광 야
에시온게벨
시 내 반 도
신(Sin)광야
하세롯
기브롯핫다아와
알루스
르비딤
다베라
아카바만
시내 산
(호렙)
홍 해
미디안 땅
가 나 안
요르단 강
여리고
사해
호르마
오봇
부논
왕 의 대 로
암 몬
모 압
에 돔
킬로미터
0
100


가나안 정복
헤르몬 산
하솔
메롬
마돈
게네사렛
호수
바산
(옥의 왕국)
아스다롯
에드레이
도르
므깃도
가나안 족속
요르단 강
대 해
(지중해)
에발 산
그리심 산
실로
아이
길갈
여리고
아시
모혼
리의
족왕
속국
암몬 족속
야셀
헤스본
게셀
기브온
아스돗
막게다
여부스
야르뭇
립나
라기스
헤브론
에글론
드빌
가자
사해
느보 산
야하스
디본
모압 족속
기르모압
아말렉 족속
북
서
동
남
킬로미터
0
50
가자(수10:41; 15:47)
게셀(수10:33; 16:3)
그리심 산(수8:33)
기브온(수9:3, 17)
길갈(수4:19; 14:6)
도르(수11:2; 17:11)
드빌(수10:3; 13:26)
라기스(수10:3; 15:39)
립나(수10:29; 15:42)
마돈(수11:1)
막게다(수10:10; 15:41)
메롬(수11:5)
므깃도(수12:21)
실로(수18:1; 19:51)
아스다롯(신1:4; 수9:10)
아스돗(수11:22; 15:46)
아이(수7:2)
야르뭇(수10:3; 15:35)
야셀(민21:32)
야하스(민21:23)
에글론(수10:3; 15:39)
에드레이(민21:33)
에발 산(수8:33)
여리고(수2:1)
여부스(수18:16)
하솔(수11:1)
헤브론(수10:3)
헤스본(민21:25; 수9:10)

(5) 비지역적 예배

마땅한 대제사장이 없던 이 시절에 사무엘은 종교적인 제사와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겸하여 행하였다. 성막은 어쩌면 다시 길갈로 되돌아갔는지도 모른다(삼상13:8). 언약 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반환되었다(삼상5, 6장).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그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언약 궤는 벳세메스에 잠간 머물렀다가(삼상6:19)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약 20여 년간 있었다(삼상7:2). 그런데 사무엘은 벧엘, 미스바, 라마와 길갈 등을 순회하며 그 도시들의 뜰에서 예식과 공중생활과 형사상의 관리 등을 장악하여 시행하였다(삼상7:15-17). 즉 이것은 지성소가 비지역화됨을 말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막이 있었어도 그 안에 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큰 혁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비지역화였으며 완전한 비지역화는 다윗 왕 때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자신이 지역을 초월하신 신임을 직접 말씀하셨다(대상17:1-15).

(6) 놉과 기브온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망명해 온 다윗에게 '보여 주는 빵'을 준 사람이다(삼상21:1-6). 놉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높은 곳으로 시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사울 왕에 의하여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비아달 하나만 남았다(삼상22:1). 그 후에 사울 왕은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긴 것 같다(대상16:39; 21:29).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10킬로미터, 벧엘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7) 언약 궤의 복귀

사울 왕이 언약 궤를 옮긴 일에 대해 다윗 왕은 개의치 않았고 한 가지 일을 하였다(대상16:39-40). 다윗은 자기가 노획한 여부스(후에 예루살렘)의 요새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또 다윗은 언약 궤를 위하여 한 곳을 택했고 기브온에 있던 성막의 모형인 장막을 시온에 쳤다(삼하6:17; 대상16:1). 그는 제단도 준비했다. 그 후에 그는 언약 궤를 기랏여아림에서 이곳으로 가져왔다(삼하6:11-18). 그때 웃사의 일로 인해 언약 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레위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다윗의 도시에 들어왔다.

(8) 두 성막

이렇게 해서 기브온과 예루살렘 두 곳에 성막이 있게 되었다. 기브온의 오리지널 성막에는 제단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막에는 오리지널 언약 궤가 있었던 것 같다(왕상3:1-4). 그 두 성막은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하나로 통합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기브온에 있던 제단이 솔로몬 왕 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 같다(왕상3:4-5).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분산된 유품들을 모아 그 성전에 안치하고 보존하였다(왕상8:4). 그러나 사실 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성막은 모세 시대부터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왕상6:1; 38).

처음에 언약 궤에는 두 돌 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었으나 후에는 두 돌 판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왕상8:9; 대하5:2-10, 특히 10절 참조).

성막과 절기 강해 제11과

성막에서 드린 헌물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했던 것과 같이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숨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막에서 드린 헌물들은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총 다섯 가지이다. 그러나 헌물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보는 이들도 있다. 즉 레위기 7장에 근거하여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여섯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여섯으로 보는 견해는 제사장 위임(성별) 헌물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 위임(성별) 헌물은 1회적이기 때문에 다른 헌물과 구별이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헌물이다. 레위기 7장 37절에 의하면 헌물은 여섯 가지이다: 번제, 음식(소제), 죄(죄 헌물), 범법(속건제)와 성별(위임제)과 화평 헌물(화목제).

제사와 헌물의 구분(*)

속죄(Atonement, At-One-Ment)와 희생 제도

죄 문제, 사망 문제(롬5:12, 14),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하나님의 치료 방법: 대신 속죄

첫 번째 희생물: 하나님이 잡은 짐승(가죽 옷, 창3:21)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히9-10)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린 것만 수용됨(창3:15; 히9:8-9; 10:8-9).

희생 제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임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의지 숭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아벨 참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잠정적으로 죄를 덮는 일이 필요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욥과 멜기세덱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BC 1500년경의 모세 율법은 단지 희생물을 드리는 때와 희생물의 수와 질 등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희생물을 골라 하나님께 드렸다. 한편 한 가족에서는 가족의 대표 즉 대개는 장자가 이 일을 맡아서 했고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아론의 가족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한 군데서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곳은 성막 - 후에는 성전 - 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이었고 여기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공적으로 경배를 드렸다(레17:4, 9; 신12:5-18).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왕과 대언자와 재판관들이 다른 곳에서 희생물을 드리기도 하였다(삿2:5; 6:26; 13:16; 삼상7:17; 왕상3:2-3; 18:33).

유대인들은 다른 이교도들과는 달리 인신 제물 드리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로 여겼다(레20:2; 신12:31; 시106:37; 사66:3; 겔20:31).

희생물과 헌물의 차이(*): 고전10:20

희생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합법적인 사역자가 하나님께 바친 헌물

원래의 희생물은 일반 봉헌물(oblation)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희생물은 말 그대로 생명을 희생시켜

드리는 헌물이고 봉헌물은 단순한 헌물 혹은 예물이기 때문이다.

헌물(Offering): 히브리말에서 헌물 즉 '민카'는 희생물을 뜻하는 '세바'와 구분되어 피가 없는 예물을 가리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피를 포함하는 헌물 즉 죄 헌물 등에도 사용되었다. 헌물의 경우 희생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음식 헌물처럼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십일조와 첫 열매 헌물처럼 헌물이나 희생물 중 어떤 것은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했고 다른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헌물의 종류:

1. **향기로운 냄새 헌물: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사53:10**
2. **죄로 인해 드리는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3. **레위기에 나오는 헌물 순서: 번제, 음식, 화평, 죄, 범법 헌물**

성막과 절기 강해 제12과

다섯 가지 헌물

1. 번제 헌물(The burnt offering or holocaust)은 원래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 헌물로서 주님께 온전히(Wholly) 바친다는 뜻을 내포함.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 단 제사장은 가죽을 취하였다 - 희생물 전체를 태우는 것이다.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죽을 벗기고 발과 내장을 깨끗이 씻었다(레1:1-17; 7:8).
모든 번제 헌물에는 일반적인 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속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희생물을 전체로 태우는 것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뜻하였고 희생물 편에서는 속죄의 완성을 뜻하였다.
레1:2-9 설명
창22:7-8,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
고후5:21; 갈3:13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되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드렸다(출29:38-40; 민28:3). 이것들은 오랫동안 태워야 하므로 작은 불로 전체를 태웠다. 아침에 드리는 어린양은 금 향단에서 향을 드린 뒤에 해가 떠오를 때에, 다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드렸고 저녁에 드리는 어린양은 밤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드렸다. 한편 각각의 어린양과 함께 포도즙과 순수한 기름과 고운 밀가루 등도 드렸다.

2. 음식 헌물(Meat offering), 레2장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를 드리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인정함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2:11). 효소 역할, 발효
누룩: 위선의 누룩(눅12:1), 악의의 누룩(고전5:8)
소금을 넣어야 한다(2:13). 방부성: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누룩과 반대)
소금 언약(민18:19; 대하13:5)

3.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은 서원을 성취하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거나(감사 헌물, 7:12) 개인의 헌신을 충족하기 위한(자원 헌물, 7:16)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화평 헌물을 드렸다(레3:1-17; 7:11-34). 율법은 단지 희생물이 흠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화평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성막 문에 와서 희생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것을 죽였으며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 번제 헌물 제단 주변에 붓고 아랫배의 기름 즉 콩팥과 간과 내장을 덮은 기름은 제단에서 태웠다. 그것들을 제단 불에 태우기에 앞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헌물 드리는 사람의 손에 들려주고 그가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거제 헌물, Heave offering 7:32) 세상의 사방을 향해 흔들게 하였다(요제 헌물; Wave offering, 7:30). 물론 이때에 제사장은 그의 손을 붙들고 방향을 가리켰다. 이 희생물의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는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레7:34). 이 일 후에 나머지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몫이 되었고 그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그것을 먹었다(레8:31). <u>화평 헌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며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의 원활한 교제를 뜻하였다</u>.
롬5:1, 10
고후5:18-20

요일2:1-2

4. 죄 헌물(Sin offerings)은 번제 헌물과는 달리 무지함으로 지은 특정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물을 가질 수 없고 제사장은 일부를 가질 수 있었다(레4:1-35).
레4:2-35, 제사장(3, 수소), 이스라엘 회중(13, 어린 수소), 치리자(22, 숫염소 새끼), 보통 사람(27, 암염소 새끼)
4:4, 안수의 의미 설명

5.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 레5장
증언, 부정한 것 접촉, 맹세, 어린양, 비둘기 두 마리, 밀가루
한편 가난해서 범법 헌물의 짐승을 희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음식 헌물을 희생물로 대신 드릴 수 있게 했다(레5:11-13). 그들은 음식 혹은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묻혀서 희생 헌물로 드렸다. 그러면 제사장은 모든 유향과 밀가루 한 움큼을 제단의 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먹어야 했으며 단지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 다른 헌물과 과일과 포도즙과 음식과 빵 등은 제사장이 일부를 제단에 던지고 나머지를 소유하였으며 이런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과 포도즙이 동반되었으나 누룩은 넣을 수 없었다(레2:1-16).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였다.
(1)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살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레5:7-8)
(2) 아이를 낳은 뒤 여인의 정결례를 위해(레12:6-7). 여인이 어린양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두 가지를 다 드리되 어린양은 번제 헌물로, 비둘기는 죄 헌물로 드렸다. 그러나 어린양을 드리지 못할 경우 집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렸다.
(3)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새 두 마리를 취해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새로 살려서 놓아주었다(레14:4 등, 49-51).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물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를 덮었을 뿐이며 양심과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히10:1-4).

성막과 절기 강해 제13과

희생물과 피

희생 예물: 피, 그리스도의 피(벧전1:18-19)

근본적인 교리:

1. 성경의 축자 영감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 그리스도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다(빨간색). 성경은 살아 있는 책이다(히4:12).

왜 그럴까? 피 때문에 살아 있다.

피의 기본 원리: 레17:11

1. 피란 무엇인가?

사람의 몸속에는 근육, 신경, 지방, 내분비선, 뼈, 결합 조직이 있다. 이런 조직들은 고정되어 있는 세포들로서 매우 미세하며 어떤 특정하고도 제한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피는 유동성이 있어 몸 안을 돌아다니는 조직이다.

하는 일: 고정된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며 세포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갖고 간다. 신진 대사 작용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 가량의 피가 있고 이 피는 23초마다 전신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며 신체 안의 여러 세포들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의 순환이 멈추면 누구나 죽는다.

2. 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아담의 창조 기사(창2:7). 영이 들어가자 생명이 생겼으므로 피가 생겼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피 즉 생명이 생겨서 그는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

그 뒤 아담은 타락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오염되어 있으며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은 아담의 피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행17:26; 창5:3).

즉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공통된' 기원을 갖는다(롬5:12-14).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은 피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피의 중독 현상'이 생겼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창2:17).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청소해야 한다.

수혈의 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담의 후손들은 할 수 없다.

천사는 피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3. 처녀 탄생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

사람의 문제: 죄와 죽음, 하나님의 요구: 공의, 희생(피 흘림, 창3장의 첫 짐승)

아담의 육체는 취할 수 있지만 피는 안 된다(히2:9, 14-17).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받을 필요가 없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내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태아에게 있는 모든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태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경우: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해 수태가 되었다(마1:20).

하나님의 방법: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여자로부터 피가 여자의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셨다.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육신은 아담으로

부터(마리아로부터) 오되 피는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방법을 준비하셨다(롬1:3-4).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계13:8; 벧전1:18-20). 임시방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행20:28). 거룩한 피, 무죄한 피, 썩지 않는 피
이 피만이 첫 사람 아담의 중독된 피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처녀 탄생의 신비이다. No 동정녀 탄생!

성막과 절기 강해 제14과

그리스도의 피의 속성

4.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진짜 피, 상징적인 피가 아니다)

1. 구속(레17:11; 마26:28; 행20:28; 골1:14; 벧전1:18; 계5:9), 구속은 하나님만 하신다. 구속과 구원
2. 화해(롬3:25)
3. 칭의(롬5:9)
4. 교제(엡2;13)
5. 화평(골1:20; 엡1:14-15)
6. 용서(엡1:7)
7. 성화(히13:12)
8. 화목(골1:20)
9. 정결(히9:14; 요일1:7; 계1:5)
10. 담대함(히10:19)
11. 성숙(히13:20-21)
12. 승리(계12:11)
13. 형벌(히10:29)

죽음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히9:22). 출애굽 사건: 출12:13

5.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몸(His body)이며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members)이고 우리끼리 서로서로 지체이다. 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체이다. 이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연합시켜 주며 '형제와 친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교파,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공급원이다(히9:13-14).

성막과 절기 강해 제15과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 예물 요약

구약 시대의 희생 예물들은 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되는 일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였지만 거룩함과 칭의를 주지는 않았다. 이런 희생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양 즉 그 모든 희생물의 미덕과 은혜를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과 예표였다. 유월절 어린양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의 희생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 주었다(히 9:9-15; 10:1). 따라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모든 예표를 성취하셨다(고전5:7; 히10:8-10).

단번 속죄: 그분께서는 단 한 차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심으로(히10:10) 모든 희생물을 대체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하셨다(엡5:2; 히9:11-26). 이같이 거룩하신 분의 속죄 희생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한편 천주교는 제사장들이 미사라는 희생 제사를 지금까지도 매주 몇 차례씩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과 영원성을 무시하고 있다.

초대 교회의 예배: 주의 만찬, 성경 낭독과 강해, 교제 등으로 구성됨.
천주교: AD 313년의 밀라노 칙령, 그 이후로 약 1000년 동안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함.
천주교의 부흥, 말세의 징조, 천주교의 핵심: 미사(제사장 체계)
니골라당의 출현, 구약시대 제사장 체계로의 복귀, 피 없는 제사인 미사 개발

두산동아백과사전: 가톨릭의 제의(祭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식(祭式).
미사는 성체(聖體)의 제의라고도 한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을 때 제정한 의식이 그 기원이다. 성서에 의하면(루가 22:14-22, I 고린 11:23-29) 그리스도는 빵을 들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라고 했으며, 또 한 잔을 비우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도 같은 의식을 신자들과 함께 계속하였으며, 그것이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식(祭式)도 그때그때의 풍습과 제복(祭服)을 받아들여 장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원래 미사는 라틴어로 행하였으나 1965년(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자국어로 행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각각 자국어로 행하고 있다. 제식의 의식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에게 바쳐지고, 성화(聖化)되어 그리스도가 제정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식이 재현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가 다 같이 자신과 세계를 신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라는 두 형색(形色)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체로 변화하여 바로 그 성체 안에 현존하며, 미사 성제 중에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서 성부께 바쳐지게 되는데, 신자들은 이 성체를 배령(拜領)- 경배하며 받아들이는 행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은총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성체를 배령하는 것을 영성체(領聖體)라고 한다. 영성체를 많이 할수록 바람직하며, 유아들의 첫 영성체는 만 7세에 행하게 되어 있다.

화체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교리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카톨릭 신앙을 요약하여 선포한다,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 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써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 왔다'[제2편 p.506- 507 # 1376].

성찬례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제2편 p.490 #13331].

그리스도께서는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현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도 현존하시므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신다[제3편 p.507 # 1377].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바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미사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이 희생 제사에 피 흘림 없이 계시고 제헌되신다(트리엔트 공의회)[제2편 p.502 #1367].

성찬례를 거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Passover, 유월절)를 기억하며 이 파스카는 현재화된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항상 현실적인 것으로 존속한다. 우리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제2편 p.501 #1364].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 즉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유일하고 동일한 제사이다[제2편 p.502 #1367].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준다[제2편 p.513 #1393].

성체 성사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래의 죽을 죄(死罪)에서 보호한다(제2편 p.514 #1395].

반론: 히7:27; 9:12, 26, 28; 10:10, 12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물이 대신 죽는 것은 구약에서 흔한 일이었으며(레16:21; **신** 21:1-8; **사**53:4; **단**9:26) **짐승 희생은 한결같이 이것을 보여 준다(레**4:20, 26; 5:10; 14:18; 16:21).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짐승 희생물의 생명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주님 앞에 부어 그것이 죄인을 대신해서 완전히 부서짐을 보여 주었다(레**17: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의지하여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피해야 함을 교육받았다. 다시 말해 회개와 믿음과 개혁이 없이 그것들만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잠**21:27; **렘**6:20; **암**5:22; **미**6:6-8). **롬**4:9-12 **설명**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하며(호6:6; **마**9:13) **최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막**12:33).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삼상**15:22-23; **참조 시** 50:1-23; **잠**21:3; **마**5:23).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린 사람은 헛되이 헌물을 드린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언자들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시40:6; 사1:11-14; 호6:6; 욜2:12-18; 암5:21-22).

끝으로 희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도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성도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뜻한다(롬12:1; 빌4:18; 히13:15-16; 벧전2:5).

성막과 절기 강해 제16과

히브리 사람들의 일곱 명절(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이 담겨 있다.
구약성경의 어느 장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더 확실히 보여 준다.
이 장은 시간 상으로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미래까지 펼쳐져 있다.
구약의 어떤 장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향한 많은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의 일곱 명절을 "주님의 명절.....나의 명절"(레23:2)이라고 하신다.
이 명절들은 '예정하신 기간들'이며 거룩한 날들이었다.
레위기 23장의 명절들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u>이 절기들은 질서 있게 그리고 완전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각 절기는 그 절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u>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낱말은 '집회'(Convocation, 모임)라는 말이다.
레위기 23장에서만 이 '집회'라는 낱말이 적어도 열 번이나 나타난다(레23:2, 3, 4, 7, 8, 21, 27, 35, 36, 37). 이 말은 '함께 모인다' 아니면 '집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절기들은 백성들이 '모이는 날들'로서 매년 지켜졌다.
실제로 이 일곱 명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모였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신16:16).
모임의 중요성: 시122:1, 히10:25
하나님을 주심에 두는 모임: 마6:33; 왕상3:11-13

이 집회들은 '거룩한 집회'(Holy convocation)라고 불렸다.
즉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날들이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이 절기들이 인간들에 의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의 명절로 타락되었다.
'유대인의 유월절'(요2:13), '유대인의 명절'(요5:1), 그리고 '유대인의 장막절'(요7:2), 사1:14
<u>거룩한 것이 충만한 능력을 잃게 될 때 약동하는 신선함을 잃게 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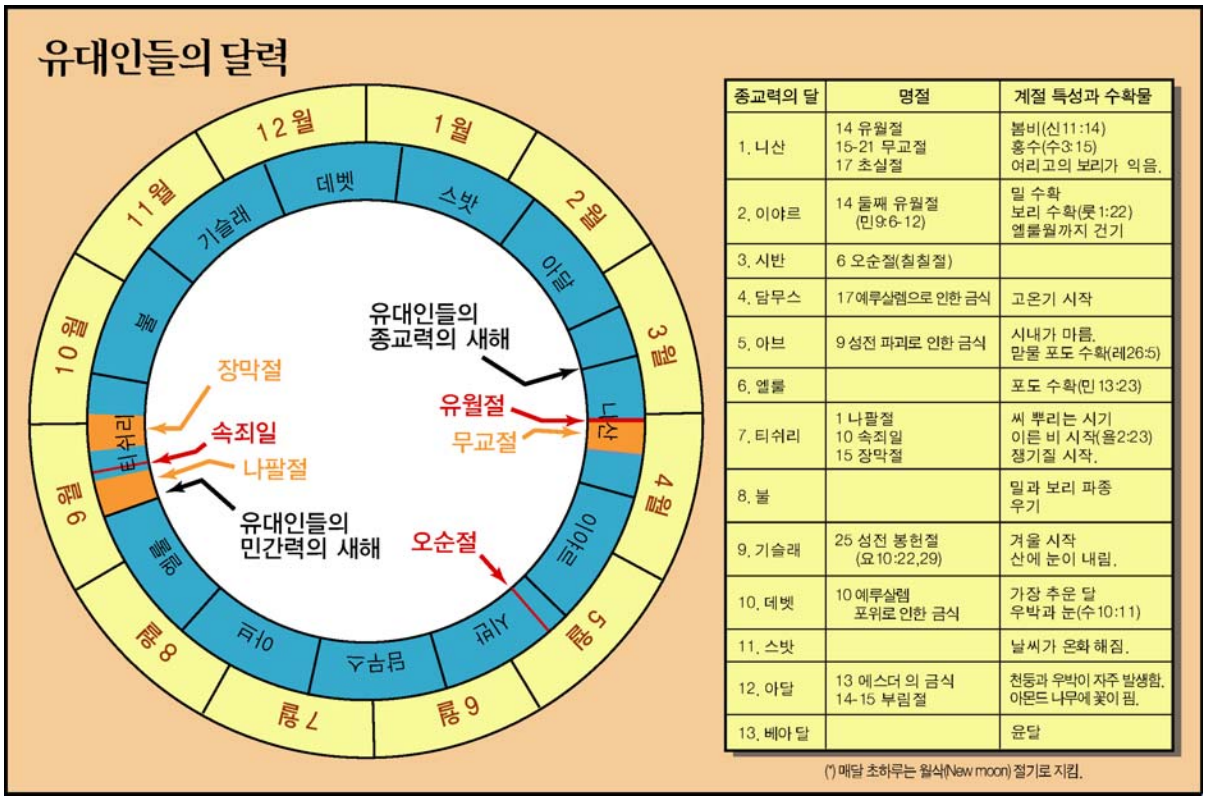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곱 개의 명절이 있었다.
1. 유월절(레23:4-5, 비교 출12:1-14; 고전5:7)
2. 무교절(레23:6-8, 비교 출12:15-20; 고전5:6-8)
3. 초실절(레23:9-14, 비교 고전15:20-23)
4. 오순절(레23:15-21, 비교 행2:1)
5. 나팔절(레23:23-25, 비교 고전15:51-52; 살전4:16-17; 사27:12-13)
6. 속죄절(레23:26-32, 비교 레16)
7. 장막절(레23:33-34, 비교 느8:13-17; 슥14:16-19)

7이라는 숫자는 레23장을 통해서 적어도 18회나 나올 정도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7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모습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곱 절기는 처음의 네 개와 마지막의 세 개의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절기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큰 간격이 있다.

처음의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다.
네 번째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절기 사이의 기간은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보여 준다.
나머지 세 개의 절기는 다가오는 미래와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이 일곱 개의 절기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완전한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달력
달(Month): 히브리 사람들의 달은 음력으로 계산되어 월삭에서 다음 월삭까지가 한 달이었다.
이 음력의 달은 각각 29일 반이었으며 그래서 한 달은 30일, 그 다음 달은 29일로 교대로 바뀌었다.
그 결과 30일이 되는 달은 완전한 달이고 29일이 되는 달은 불완전한 달로 불렸다.
월삭은 항상 달의 시작 즉 초하루였다.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달의 이름 없이 그냥 1월, 2월, 3월로 불렀다.
<u>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4월경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7월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달을 유대인들의 종교력에서 1월로 지정하셨고 모든 명절은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졌다.</u>
첫째 달인 니산 월은 지금의 4월에 해당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달과 현재의 달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유대인들의 1월: 니산 혹은 아빕(현재의 3-4월, 출12:2; 13:4; 에3:7), 2월: 시브 혹은 이야르(4-5월, 왕상6:1), 3월: 시반(5-6월, 에8:9), 4월: 담무스(6-7월, 겔8:14), 5월: 아브(7-8월), 6월: 엘룰(8-9월, 느6:15), 7월: 티쉬리 혹은 에다님(9-10월, 왕상8:2), 8월: 불(10-11월, 왕상6:38), 9월: 기슬래(11-12월, 슥7:1), 10월: 데벳(12-1월, 에2:16), 11월: 스밧(1-2월, 슥1:7), 12월: 아달(2-3월, 에3:7).
한편 음력의 열두 달은 354일 6시간이므로 유대인들의 한 해는 태양력의 한 해보다 12일 적다. 춘분과 추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3년마다 베아달 즉 '두 번째 아달'이라는 열세 번째 달을 첨가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음력과 현재의 태양력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종교력의 달	명절	계절 특성과 수확물
1. 니산	14 유월절 15-21 무교절 17 초실절	봄비(신11:14) 홍수(수3:15) 여리고의 보리가 익음.
2. 이야르	14 둘째 유월절 (민9:6-12)	밀 수확 보리 수확(룻1:22) 엘룰월까지 건기
3. 시반	6 오순절(칠칠절)	
4. 담무스	17예루살렘으로 인한 금식	고온기 시작
5. 아브	9성전 파괴로 인한 금식	시내가 마름. 맏물 포도 수확(레26:5)
6. 엘룰		포도 수확(민 13:23)
7. 티쉬리	1 나팔절 10 속죄일 15 장막절	씨 뿌리는 시기 이른 비 시작(욜2:23) 쟁기질 시작.
8. 불		밀과 보리 파종 우기
9. 기슬래	25 성전 봉헌절 (요10:22,29)	겨울 시작 산에 눈이 내림.
10. 데벳	10 예루살렘 포위로 인한 금식	가장 추운 달 우박과 눈(수10:11)
11. 스밧		날씨가 온화 해짐.
12. 아달	13 에스더 의 금식 14-15 부림절	천둥과 우박이 자주 발생함.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핌.
13. 베아 달		윤달

(*) 매달 초하루는 월삭(New moon) 절기로 지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초림): 레위기 23:1-22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유월절)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무교절)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초실절)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오순절)

1. 유월절(The Feast of the Passover):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레23:4-5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상황, 엄청난 속박과 학대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계획(출11:5):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죽음의 선고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셔야만 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의미를 주는 '어린양'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어린양'이라는 단어는 창22:8절에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양'의 교리적이며 예언적인 중요성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야 완전히 나타난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17과

1. 유월절(The Feast of the Passover):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레23:4-5(1월 14일)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상황, 엄청난 속박과 학대

'어린양'의 교리적이며 예언적인 중요성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야 완전히 나타난다.

(1) 첫째로 '어린양'은 선택되어야만 한다(출12:3).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는 분이시므로 그분께서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한다.

출12:3의 '어린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창22:8 참조).

그 '어린양'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계13:8), '창세 이전에 예정된 어린양'(벧전1:19-20)이셨다.

(2) 둘째로 '어린양'은 흠이 없어야만 한다(출12:5).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벧전1:18-19).

그분은 죄를 알지 못했고(고후5:21) 죄를 짓지 않았으며(벧전2:22) 죄가 없었다(요일3:5).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 월 십일(1월 10일)에 '유월절 양'을 선택했고, 니산 월 제 십사일(1월14일)까지 그 양을 지켜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했다(출12:3, 6).

<u>시험의 기간</u>,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도 역시 시험의 기간을 포함했다.

사탄의 증언: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과의 대면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양임을 증언했다(마4:1-11). 마귀들의 증언(막1:24), 유다의 증언(마27:4), 빌라도의 증언(눅23:4; 마27:24, 19절도 참조)

(3) 셋째로 '어린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흠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판명된 후에 그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사53:7).

요1:29, 고전5:7

그 첫 번째 유월절 저녁에 수많은 어린양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을 복수인 '어린양들'(lambs)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수인 '어린양'(a lamb)으로 기록한다(6회, 3,3,4,4,5,21절).

살아 있는 양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는 비록 죄가 없고 흠이 없으셨으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죄를 대속할 수는 없다.

계시록 5장(계5:3-8),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어린양'이다. 어린양에 대한 장로들의 노래(계5:8-9)

계시록 7장에는 구속받은 큰 무리가 나타난다. 그들은 교회가 휴거된 뒤에 구원을 받는 환난 성도들로서 어린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계7:9-14).

(4) 넷째로 '어린양'은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물이어야만 했다.

아담과 이브의 가죽 옷(창3:21)

아벨은 자신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양을 갖고 왔다.

'대속'이라는 성경의 원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마20:28; 롬5:8; 고전15:3; 갈1:4).

유월절 어린양의 대속 사역에 관한 구절(고전5:7).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유월절 어린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게 된다(갈2:20).

(5) 다섯 번째로 '어린양'의 피는 뿌려져야만 했다(출12:7). 출12:3
히브리인 아버지가 양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문기둥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 했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신약시대의 성도들(saints)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다"(벧전1:2).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출12:2).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죄인이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는 다시 태어난다.
유월절이 있는 니산 월(月)은 모든 달들의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고후5:7).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요3:3, 7, 9). 그는 새로운 출생을 모르고 있었다.
내 부모님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나는 큰 아들로 첫 번째 태어났다. 동생은 둘째로 태어났으나 역시 이 세상에는 첫 번째 태어났다. 막내도 셋째로 났으나 역시 이 세상에는 첫 번째 태어났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이상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첫 번째 출생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선고 아래 놓여 있는 출생이다(롬5:12).
첫 번째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2:1).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의 탄생으로써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첫째 아담의 세대를 다루는 책이며, 신약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다루는 책이다(창5:1; 마1:1).
유월절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을 나타낸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날에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지워진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사38:17), 다윗 왕의 고백(시103:12), 미가 대언자의 고백(미7:19)
유월절은 일곱 개 명절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이 된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담과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가?
당신은 두 번째 태어났는가?
당신에게는 유월절이 있는가?(요5:24)

2. 무교절(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레23:6-8(1월 15-21일)
두 번째 명절인 무교절은 유월절을 따라서 시작되었다. 유월절 어린양은 정월 십사일(or 13일) 해질 때 죽임을 당했다(레23:6). 해가 지자마자 십오일(십사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첫째와 둘째 명절 사이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없었다. 두 명절이 밀접해 있었기에 신약에서 유월절은 무교절 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었다(눅22:1).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명절이었고 '어린양'의 죽음도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길게 지키는 명절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유월절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롬6:10; 히10:10-12).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 준다.

반면에 무교절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무도 누룩을 치움으로써(무교절)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에 (유월절) 누룩을 치운다는 사실이다.

무교절은 '7일'이라는 완전한 기간에 걸쳐 행해진 절기였다(레23:6; 민28:17; 신16:1-4).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신16:3)
'유월절 어린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하나님과 신자와의 교제의 바탕인 신자들의 생활을 나타낸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이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은 구속된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보여 준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 관계를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악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을 쓰인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 썩는 일이 생긴다.
주의 만찬: 누룩 없는 빵, 포도 주스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항상 누룩의 흔적을 없애야만 했다.
신자는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작이다.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달콤하며 거룩히 구별된 사귐이 있어야 한다.
누룩을 치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누릴 수 없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요한 원리: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고전5:7-8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유월절(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
무교절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실제적인 성화와 교제의 시작을 상징한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19과

유월절은 구원의 교리, 무교절은 성화의 교리를 제시한다.
이 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성화는 구원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난다(고전5:7-9). 성화: 성도들의 고민거리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이유: 구원 다음에 성화가 온다.

'성인'과 '성화'라는 명사, '성화시킨다'라는 동사는 모두 그리스어 '하기아조'(hagiazo)에서 나온다.
이것은 '나누다' 혹은 '분리시키다'의 의미를 지닌다: 안식일(창2:3)과 성막과 그 안의 것들(레8:10)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인들'(saints)(한국어 성경들은 '성도들'로 표기)이라고 부른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다(롬1:7; 고전1:2; 엡1:1; 빌1:1 등).
성도(성인)라는 단어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사용되었다: 살아 있는 사람들(여전히 죄를 지음)
로마카톨릭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saint는 <u>거룩한 행위를 한 죽은 사람</u>을 지칭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고전1:2). 파당, 음행, 법정 소송, 우상 음식, 주의 만찬 등

성도들의 성화의 세 가지 단계
1. 위치적 성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성화를 일으키는 성령님에 의해 단번에 하나님께로 분리가 된다(벧전1:2; 살후2:13; 고전6:11).
<u>2. 실제적 성화: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u>
살전4:3-8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1:44-45; 19:2; 20:7; 벧전1:16).
예수님의 산상설교(마5:48)
실제적 성화는 위치적 성화와는 달리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개개인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요15:3; 17:17: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분리하신 목적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

3.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이 성화의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완전한 성화라는 책임을 늘 깨닫고 산다.

완전 성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성결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잃는다는 교리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날이 있다(살전3:13; 요일3:2; 엡5:25-28; 고전15:51).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옛 생활의 거룩하지 못한 행위에서 구해 내실 것도 계획하셨다(갈1:4; 고후5:15).

성경 속의 누룩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종종 누룩을 언급하셨으며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악의 원리임을 보여 주셨다.

1. 속이는 누룩(눅12:1): 위선자라는 단어는 연극배우를 위해 사용되었다.

신자인 체 행동하며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위선자이다.

우리 주님은 위선을 저주하셨다(마6:1). 위선자들(마6:5; 16-18; 15:7-8, 비교 사29:13).

바리새인은 율법의 글자대로 모든 일을 하려는 종교적 분파로서 분리주의자를 의미한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더욱 종교적이라고 믿었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눅18:10-12; 마23:13-33).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일곱 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하셨다(마23장).

2. 속되게 하는 누룩: 속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는 누룩이다(헤롯의 누룩 막8:15).

헤롯의 비윤리적인 생활양식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는 그의 욕망과 그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한 사실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눅13:31-32; 마14:1-3).

헤롯의 누룩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이다(요일2:15-17).

고린도 교회에서 도덕의 타락을 일으킨 누룩은 그곳의 비도덕적인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전5:7; 고후7:1).

3. 교리 부족의 누룩: (마16:6, 11-12).

a.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저주, 욕심, 질투, 시기, 육체적 욕망, 미워함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옳은 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b.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다(마22:23; 행23:6-8).

그들은 그 당시의 실존주의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인간이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단순한 현재만을 의미했다. 그들은 지적인 사람들로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마태22:29).

c.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전15:12; 딤후2:18).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었다.

d.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리의 부족'이라는 누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율법주의의 영향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갈2:19-21; 3:1-3; 3:25-26; 4:4-6; 4:9-13). 갈5:1-8

성막과 절기 강해 제21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할 것인가?

우리의 갈등의 핵심 문제, 출12장의 해결 방법, 출12:8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뒤 '어린양'을 먹어야 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출12:43-49).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것이다(출12:15; 레23:6).

a.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요6:53-54),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됨

이 구절은 '주님의 만찬'을 뜻하지 않는다(때가 다르다, 고전11:23).

요한복음 6:53-54절에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들을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셨다.

b.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을까?

요6:35: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분을 먹어야만 함을 가르친다.

요한복음 6:51-56에서 절마다 한 번씩 여섯 번이나 그분은 자신의 살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결론(요6:63): 성도들이 실제로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6:63(내 말들)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록된 말씀'(The Scriptures)으로 제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을 보존하며 강건케 하는 능력도 있다.

그것은 바로 우유이며(벧전2:2) 영혼의 양식이다(히5:12-14). 예레미야(렘15:16)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성화와 영적인 성장의 시작과 유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다. 이것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이다.

누룩이 발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출12:19): 심한 경우 교제의 단절, 죽음

누구라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다(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요일5:16).

물론 거듭날 때 얻었던 영생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그리스도인이 잃는 것은 육체적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따라 살므로(롬8:13),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요15:2), 성령님께 거짓말하므로(행5:1-6), 하나님께 불평하므로(민16:41-49), 아니면 도덕적인 죄에 빠지므로(고전5:1-8)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알고 행한 죄와 비밀리에 행한 죄를 고백하여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자.

3. 초실절(The Feast of Firstfruits): 첫 열매 절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 (레23:9-14, 1월 17일),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다(가을이 아니라 봄에 거두어들인다).

구약의 절기들은 단지 이스라엘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예언과 구원의 측면에서 폭넓은 말씀을 포함한다.

유대인들의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 성취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다.

그 달력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날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골2:17).

유월절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을 기해서 7월을 1월로 바꾸시고 새 달력을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묵은 달력의 처음 여섯 달은 첫째 아담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영생을 가져왔다(고전15:22).
하나님은 새 달력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기초(고전3:11) 위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만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비극이었을 것이다(히2:14-18).
초실절 즉 첫 열매 명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한 큰 사건 즉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보여 준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22과

초실절이 별개의 명절이 되는 이유: 초실절의 날은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실절에 행하는 일 즉 첫 열매의 단을 흔드는 것이 무교절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초실절을 별개의 명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해질 때 기념하였다. 무교절은 정월 십오 일부터 이십일 일까지 정확하게 만 칠일 동안 걸쳐 지켰다.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인 정월 17일에 지켰다.
그러므로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이 명절들이 겹치고 있으나, 이 세 개의 명절은 각각 다른 교리적/실제적 진리들을 강조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 번째 절기와 그 앞의 다른 두 절기들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동안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초실절과 그 외의 다른 절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야 기념할 수 있었다(레23:10).

그 뒤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해서 소유해야만 될 것을 확실하게 명령하셨다(신26:1-11).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며 또 그것들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육신으로 인해).

초실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이다(레23:10-11).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비하신 곳 즉 가나안 땅에 있었다(신8:7-10).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풍성함의 땅이었다.
초실절에서 첫째로 배우는 교훈은 소유권에 대한 원리이다. 하나님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시24:1; 고전10:26, 28). 이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딤전6: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학2:8; 고전4:7).
<u>잘 익은 곡식들의 첫 단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헌금의 원리: 고후9:6-8</u>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유의 첫 번째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이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것을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권을 갖고 계신다(잠3:9; 마6:33).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 빵을 굽기 전에 주님께 첫 단을 드려야만 했다(레23:14).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그 땅을 소유해야만 한 이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복(엡1:3),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신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말씀은 없다.
우리가 이 복을 우리 것으로 취하기 전에는 그분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둘째, 초실절이 가르쳐 주는 좀 더 큰 교훈은 '신자의 안전'이다.

성도의 안전은 성도의 부활과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었다(출12:2).

유월절 '어린양'이신 우리 주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고전5:7).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같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 사건을 보여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그 뒤에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사건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의 그분의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한 신약성경의 대표적 부활 장이다.
고전15:22-23의 중요성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전15:1, 3-4).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을 정리한 순서는 처음 세 개의 절기들을 지킨 순서와 같았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 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죽었거나 이제 죽을 모든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으며 이것은 곧 수확이 뒤따라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수확이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님같이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바로 그 수확이다.

"성경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일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레23:9-14를 염두에 두었다.

우리의 안전 보장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에 달려 있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23과

고전15:1-4을 자세히 보면 복음은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불완전하다(롬10:9-10; 롬4:25).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성경의 다른 증거들(롬8:22-23)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있게 될 우리의 양자됨(몸의 구속)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인 몸의 부활에 대한 확증은 여기서 성령님의 첫 열매라고 불린 것 즉 '성령님의 내주'이다. 'firstfruits of the Spirit': 성령님이라는 첫 열매(내주) 혹은 성령님의 보증(첫 열매는 보증을 뜻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며,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지금 이 땅 위에 계신다. 즉 이것은 갑절의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하늘에 계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첫 열매 즉 성령님의 내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도장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거룩한 도장이시다(엡1:13-14).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으리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후1:22).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의 한 부분임을 가르쳐 준다(약1:18).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첫 열매가 되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수확의 시작이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첫 열매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따라오는 수확이 있는가? 그러면 그 수확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배출되고 있는가?
시126:6

첫 열매: 이스라엘(렘2:3)
첫 신자들(롬16:5; 고전16:15)
144,000명(계14:4)
그리스도, 무덤에서 처음 일어나신 분(고전15:20, 23)

첫 열매 명절에 일어난 일들

1.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정착함(창8:4): 노아의 자손들이 바로 이 날에 최종적으로 땅에 안전하게 닿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첫 열매'가 되었다.
이집트 탈출 전에 그들이 사용하던 구 달력의 칠월 십칠 일은 신 달력의 첫째 달인 니산 월의 십칠 일이다.

2.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넘
유월절, 무교절 이후, 파라오의 군대의 추격,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죽음의 바다(홍해)의 물을 나누셨고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새로 태어난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1월 17일 초실절에 부활한 국가로서 새로운 삶을 위해 갈라진 물 사이를 건넜다.

3.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음(수5:10-12)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들은 요르단 강을 건넌 뒤에, 1월 14일에 유월절 만찬을 먹었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에 그 땅 소산의 오래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6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만나를 마지막으로 주신 날이었다. 그들이 그 땅 소산의 오래된 곡식을 먹은 다음 날인 1월 16일에 만나가 그쳤다. 초실절인 1월 17일이 다가왔고 만나가 없었으므로 백성은 그 해에 거두어들인 첫 열매 즉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월 17일에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고전15:20; 마27:52-53).

부활의 증인들(고전15:4-6)

부활(Resurrection): 성경은 적어도 세 종류의 부활을 말한다.

I. 몸의 부활: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몸뿐이며 따라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이다. 예수님은 무덤으로부터의 몸의 부활에 대해 명쾌하고도 뚜렷한 가르침을 주셨다(요5: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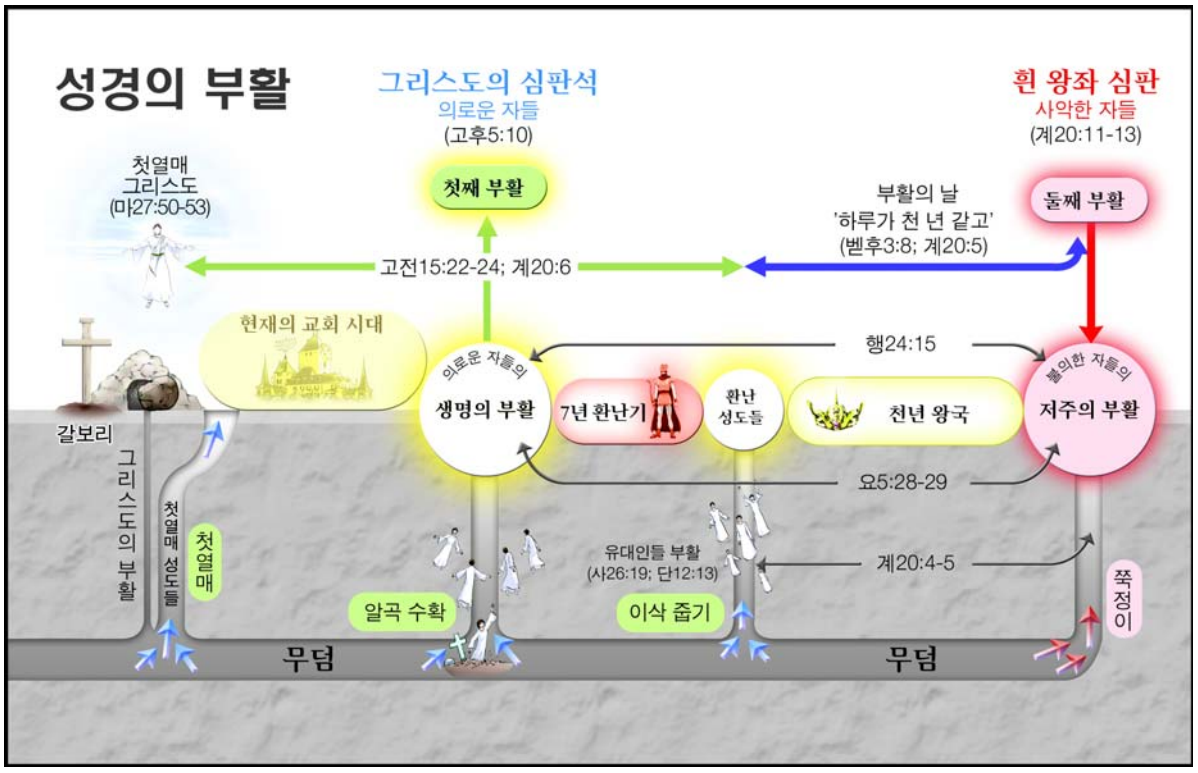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을 가르쳤다(행24:15).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으로 믿지만 요한계시록은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며 이 두 부류의 부활 사이에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음을 보여준다(계20:4-5).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활하는 것은 고전15:23-24에 묘사되어 있다. 첫째 부활에도 세 그룹(혹은 단계)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수확'이며 7년 환난기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줍기'이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7년 환난기의 한 부분에서 부활할 것이다(사26:19: 단12:13).

한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마27:51-53).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를 이루었다.

지금의 사람의 몸은 하늘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변화는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전15:42-44).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그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의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졌지만 피는 없었다(눅24:39-43).
II. 민족적 부활: 이 부활은 1948년까지 민족적으로 죽어서 여러 민족의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겔37:1-14).
III. 영적 부활: 이 부활은 영적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엡2:1-6; 5:14; 참조 롬6:11).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활로서 계속해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이것은 '영적 부활'이라 할 수 있다(요 5:24).

예수님이 죽으신 날: 유월절(마26:2), 1월 14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초실절 1월 17일

대부분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믿음: 금요일 오후에 처형되시고 금요일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주일 오전 6시쯤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36시간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된다.

마12:39(눅11:29), 욘1:17

수요일(예비일: 막15:42; 요19:31) 오후 3시에 죽고 6시경에 무덤에 들어감(1월 13일 혹은 1월 14일)
1일, 큰 안식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날,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1월 14일 혹은 1월 15일)
2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1월 15일 혹은 1월 16일)
3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평상시의 안식일(1월 16일 혹은 1월 17일)
주님은 토요일 저녁 6시경에 부활함: 일요일이 시작되는 때(1월 17일 시작 혹은 1월 18일)
마28:1 등은 주님이 부활한 때가 아니다.

4. 오순절(The Feast of Pentecost):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레23:15-21)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중 중간 명절인 오순절(The Feast of the Weeks) 즉 '주(週)들의 명절'
첫 세 명절은 이스라엘과 주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개인적인 교리의 적용과 미래에 예언적으로 성취될 것을 가르쳐 준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명절인 무교절은 유월절을 뒤따라 일어나며 그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둘째 명절은 '성화의 명절'이라고 불린다.
세 번째 명절인 '첫 열매 절기'(초실절)는 청지기의 사명과 성도의 부활을 보여 준다.

오순절은 적어도 네 번 이상 '주(週)들의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다(출34:22; 신16:10, 16; 고후8:13).
'주(週)들'이라는 명칭은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라고 기록된 레위기 23 장 15절에서 나온다.
일곱 번의 안식일은 일곱 주간을 의미한다.
레23:15-16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십 번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토스'(Pentecostos)에서 유래됨.
이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오십 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으므로 '오순절'이라고 불린다.

신구약에서는 '예표와 실체'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율법이 주어졌다(출19:1-2, 11), 셋째 달에 시내 산에 다다름.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주어졌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의 말: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르매"(행2:1)
여기서 '충만하게'(Fully, 개역성경은 '이미'로 오역함)는 오순절에 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됨을 뜻함.
비교 갈4:4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정확히 오십 일이 지나서 오셨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달력'대로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유월절은 초실절 전에 있어야 했고 초실절은 오순절 전에 있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요7:39).

성막과 절기 강해 제25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달력'에 새로운 기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오십 일을 센 뒤 주님께 드린 새 음식 헌물'(레23:16)이다.
새로운 기점이 된 것 즉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헌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순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순절의 성취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2:1은 일곱 개의 명절 중 네 번째 명절인 오순절의 예표가 실제로 성취됨을 보여 준다.
우리 주님의 부활 후 정확히 오십 일이 지난 후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 날 그분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레23:17)라 불리는 새로운 것을 지상에서 시작하셨다.
그 새로운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레23:17에 예표로 주어진 것 즉 주님께 흔들어 드리는 두개의 빵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큰 문제
마16:18의 교회는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었다.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자신의 달력에 영구히 고정시켰다.
이것이 오순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기초에 서 있는가?
마16:18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마16:18의 '베드로', 그리스어는 '페트로스', 이것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떨어진 돌'을 의미한다.
마16:18의 반석, 그리스어인 '페트라'는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그 반석이셨다(신32:4, 15, 18, 30-31).
다윗 왕(삼하22:2; 시18:2, 31, 46 참조).
사도 바울(고전10:1-4; 고전3:11)

교회의 형성
오순절 예식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두 덩이의 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레23:17).
왜 두 덩이의 빵을 드렸는가? 두 덩이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즉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엡2:13-18; 참조 고전10:32).
고전12:13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메시아의 부활 이후 오십 일째 되는 날 즉 유대인과 (후에) 이방인이 그 메시아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된 날을 가리킨다.

현재의 교회 시대에는 두 개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하나는 신인(神人)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이다.
히1:3 참조 8:1; 10:12; 12:2
히7:25; 9:24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변자가 되신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유월절 양과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지금도 모든 신자들 안에서 또 신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오심'(the Spirit's incoming)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몸에 오신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롬8:9).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살전4:8).
요일3:24; 고전3:16과 6:19-20 참조).

'성령님의 내주'(the Spirit's indwelling)
유월절 어린양이신 우리 주님의 약속(요14:16-17)
오순절 전에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다.
사사들의 통치기간이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참조 삿3:10; 6:34; 11:29; 13:25; 14:6,19; 15:14).
요14:16-17에서 주님은 '너희와 함께함'(with you)에서 '너희 안에 거함' (in you)으로 변화를 가져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던 날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고전3:16-17; 고후6:16-18). 그 이후로도 우리는 죄를 짓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the Spirit's infilling)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엡5:18).
성령 충만은 명령이지만 성령 침례는 명령이 아니다.
성령 침례(즉 연합)'(being baptized with the Spirit)는 현재의 교회 시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교회 시대 이전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았고 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것이었다(행1:5).
주님의 죽음(유월절 어린양)과 부활(첫 열매) 전에는 성령 침례가 아직 미래의 사건이었다.
'성령님의 침례 사역'은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오순절 날 일어났다(행11:15-17).
현재의 교회 시대에서 '성령 침례는 거듭난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다(고전12:13).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유일하시고 살아 계시며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셨다.
그 결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고(고전12:13), 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며(롬8:9), 그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엡2: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셨다. 오순절은 바로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26과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사도행전의 골자: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뀜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하며 동시에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준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왕국의 건립임: 행1:6, 1:8
예루살렘, 유대(1-7장), 사마리아(8), 땅 끝(9-28), 1장이 대략 1년임
2-3장 베드로는 여전히 재림의 시각으로 말씀을 선포함(요엘서 2장)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의 관점은 아직 이방인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었다(행1:5-8 설명).
2장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함, 유대인들의 명절(2:5, 9-11)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 생각함(욜2:28-32), 주의 날
여기의 모든 육체는 누구인가?
너희의 아들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주의 날: 누구를 가리키는가? 100% 유대인
2:22; 36 이스라엘의 온 집
41절: 3000여 명이 그들에게(120명에게) 더해짐
47절: 그 이후에 구원 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짐
3장으로 가서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13절, 18
19-26절 설명: 대단히 중요하다.
5장: 아니니야와 삽비라
6장: 일곱 사람 선출
7장: 스데반의 죽음
8장: 유대인 제자들이 흩어짐(1-4절),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내시 전도
9장: 사울의 회심
중요한 분기점: 10장 34-35,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교회 시작 후 10년이 지난 뒤)
행11:17-18,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과 바나바만 나옴, 16장 이후로는 바울만(2차 선교 여행부터)

변천기:
구원의 모습: 2장, 10장, 19장 성령 침례, 방언
8장 12-13절, 37-39절, 9장 18절(사울), 13장-28장까지(19장 빼고)는 방언이 없음
방언: 글로싸(tongues), 원래는 몸의 기관인 혀를 가리키며 파생된 뜻으로 다른 나라 민족이나 말을 뜻함. speak with tongues의 형태로 쓰임.
사도행전 2장의 방언: 100% 유대인들의 모임, 100% 이방인들의 말(2장 7-8, 9-11)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저질 교회(주후 55년경), 분쟁, 음란, 법정 시비, 결혼, 우상 제물, 은사, 부활, 사도 바울의 자질 시비 등
12장 28-29, 방언은 가장 저급한 은사
14장 알지 못하는 언어(unknown tongues)?
6절, 19절 알지 못하는 언어=타언어, 20-22절이 키포인트임
방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고전1:22),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는 대언임(23-25)
방언 정리: 방언이 이슈가 되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낮은 곳이다. 굳이 원하면 27-28절에 따라 한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27과

대언(예언): prophecy, prophet은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을 뜻함. 이 안에 가끔씩 예언이 들어 있음. 아브라함 창20:7, 아론 출7:1-2, 에스겔 겔37:3-4, 눅11:49-51

성경의 예언은 모두 대언이며 선지자는 모두 대언자이다. 개역성경 고전 14장의 예언도 모두 대언이다.
대언과 방언의 은사는 그친다(고전13:8).
더 이상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는 없다.
살전5:20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대가 변했다(마10:6).
<u>말씀의 문맥을 보지 않으면 성경으로 모든 교리가 다 입증된다.</u>

오순절에는 또 다른 흥미 있는 점이 있다.
 두 덩어리의 빵은 누룩과 함께 구워져야 했다(레23:17).
 무교절을 공부하며 누룩이 악의 근원인 죄의 상징임을 보아 왔다.
 그러면 왜 이 빵들은 누룩과 함께 구워져야 했을까?
 이 두 덩어리의 빵은 구속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지칭한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현재의 삶속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서에서 성령님은 항상 교회 안의 죄 문제를 다루신다.
 요일1:8
 요일3:2; 롬8:29; 엡5:27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꾸준히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
 베드로의 예
 우리 주 예수님이 구속한 무리 가운데 아마도 변덕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은 그의 설교를 통해 삼천 명이나 회심하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인다(요일5:16(자기 형제))
 구약: 나답과 아비후(레10:1-7), 고라와 그의 형제들(민16), 아간(수6-7), 웃사(삼하6),
 신약: 행5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전5:3-5; 고전11:30; 딤전1:19-20; 약5:14-20)
 요15:2는 어떤가? 접붙인 가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히12:1-13, 특히 9절).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렘7:16).
 히6:4-12
 마24:13, 14, 6의 끝

네 명절 정리

현재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 처음 네 명절(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숨겨진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처음 네 명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예표로 보여 준다.

오순절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말씀하신 후(레23:15-21) 하나님은 22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추가하셨다(레23:22). 이 구절의 '나그네'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엡2:12)고 볼 수 있다(요10:16; 17:20; 행2:38-39).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오순절)을 따라서 교회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서 형성되었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

레23:23-44

-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
-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
-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남
-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5. 나팔절(The Feast of Trumpets):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
(레23:23-25)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오순절 다음에 진행되는 사건은 나팔절이다(레23:24).
7월 1일(지금 달력으로 9월 말)
이 명절은 마지막 세 개의 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서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의 달력'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의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오순절은 봄(유대인 달력의 3월 초)에 지켰고 남은 세 개의 절기(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는 가을에 지켰다.
삼월 초부터 칠월 일일까지는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성회가 없었다.
삼월의 일부분과 4-6월은 대기하는 기간이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은 다른 어느 절기들 사이의 기간보다 더 길었다.
그러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이 긴 기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유대인은 누구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전10:32).
유대인들의 연대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이집트 탈출 때에 다른 민족과 확연히 구분된 독립 민족이 되었다.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이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에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끝이 난다.
현재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탈선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携擧)를 받으면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현재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때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른다(눅21:24).

유대인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셈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때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전개된 인류 역사의 태동기부터 시작된다(창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 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창13:14-17; 15:1-5, 18-21)은 무조건적인 약속들이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창26:1-4)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창28:10-15) 거듭 확인되었다.

유다 민족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다.

유대인들의 보존은 기적이다.

유대인들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표적 즉 '불타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이다.

인류 역사상 유다 민족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눈으로 본 민족은 없다(신4:7).

홍해, 요르단 강, 만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리고 성벽(수6:1-27), 해와 달이 머물러 섬(수10:12-14), 주님의 천사가 185,000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병사들을 죽임(왕하19:35).

유다 민족만큼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민족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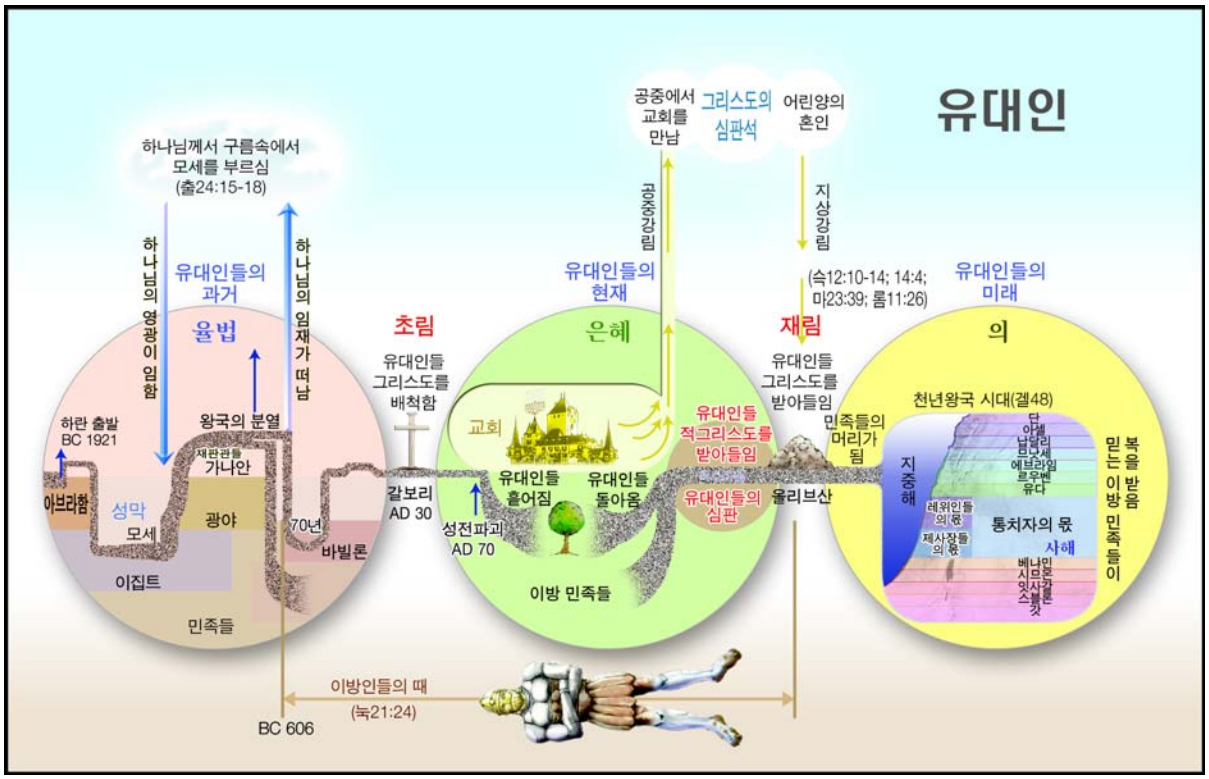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겸 입법자, 이집트의 요셉이나 바빌론의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지혜의 사람 솔로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대언자, 특히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수많은 예술가, 사상가, 재산가

그들이 선택된 첫째 이유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가르치기 위함이다(신6:4).

둘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롬3:1-2).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함이다(요4:22).

넷째 이유는 이 세상을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해 내기 위함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마5:13).



성막과 절기 강해 제29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계획 배척

예수님의 지상 생활 33년, 하늘의 왕국

마23:37-39(요1:11의 의미)

AD 30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배척함.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됨(신28:62-64; 신18:15 참조).

눅21:5-28,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들이다.

20-24절 설명, AD 70년과 상관이 있다. 특히 24절 말씀, 27절(사람의 아들이 온다)

그러나 단순히 AD 70년의 성전 훼파를 가리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배척의 결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없다. 희생 제단이나 희생 제물 그리고 제사장도 없다.

유월절은 지키지만 유월절 어린양을 잡지는 않는다.

속죄일은 지키지만 속죄를 위한 피는 흘리지 않는다. 모든 희생 예물과 헌물은 중단되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으며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도 없다.

우림과 둠밈도 하나님의 상징이 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대체되었을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 천주교, 장로교 등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과 왕과 수도를 얻을까?

그들의 상황은 호세아서 3장 4-5절의 예언이 그대로이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한다(눅21:24).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롬11:25-27,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 출14:13).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혹은 교회에 의해 밀려나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구성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회복

1. **그 사실에 관하여(암9:14-15; 사11:11-12; 43:5-7; 렘16:14-15)**
2. **그때에 관하여(눅21:24)**
3. **그 방법에 관하여**
   (a)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옴(겔36:24-27).**
   (b) **회심하기 전에 심판을 받음(겔20:33-38; 겔22:19-22; 말3:1-3; 슥13:8-9)**

(b) 회심하기 전에 심판을 받음(겔20:33-38; 겔22:19-22; 말3:1-3; 슥13:8-9)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위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
예레미야서 30장 4-7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 환난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큰 환난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과 스가랴 대언자는 이 기간을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키고 있다(마24:21-31; 슥14:1-11).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 유대인들은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된다(슥12:10-11).
이렇게 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슥14:4).
이때에야 비로소 유다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 하루 만에 태어날 것이다(사66:8).
이때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언한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세워진다(렘31:31-34).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렘31:34).
그들이 자신들의 본토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차지한다(창15:18).
에스겔에 따르면 이곳은 다마스커스의 북동쪽 하맛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가데스까지이다(겔48:1-29).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에스겔서 40-48장 참조)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며 희생 예물이 다시 드려진다.
그리고 정부가 재수립되고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슥8:20-23).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긴 기간
이때에 이스라엘은 나팔소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쉬고 있다.
기다리는 시간은 이 긴 기간처럼 인류의 역사상 아마도 가장 긴 기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이 긴 기간을 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
예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하셨는지 혹은 정확히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될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안디옥 교회의 요청에 따라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는 교회를 택한 것을 말한다(행15:14).
이 말은 결코 이스라엘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간증을 하였다(행15:15-16; 암9:11; 미7:11).
16절의 '이 일 후에' 가 중요함.
나팔절은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 안에서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제시한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달력에 적어 놓은 한 사건 즉 나팔절을 지적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구약시대 400년의 침묵기, 주님의 초림, 교회 시대, 주님의 재림

나팔절의 의미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안하신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이한 통신수단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에서 나팔이 처음 나오는 곳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출19:13-20).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고, 섬기고, 전쟁을 준비하게 했다(민10:1-10).
원래는 매월 월삭에 나팔을 불었다(민10:10).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연결선이었다.
초소에서 파수꾼들이 적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다가오면 역시 나팔로서 이것을 알렸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전14:8).

하나님의 절기들은 연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회시대(오순절)가 끝나며 나팔절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따라 오순절과 나팔절을 이어줄 성령님의 강림 다음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마24:29-31:
전체 이스라엘이 깨는 그 날에 말세의 유대인 중 남는 자들은 모두 나팔소리를 들을 것이며 그것에 응답할 것이다.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현재는 일부만 모였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31과

유대인 독자들을 위하여 쓰인 마태복음 24:31의 예언은 구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새로운 바가 아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글(사27:12-13)

대언자 요엘도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욜2:15-21).
구약의 다른 대언자들이 대언 주제 역시 '크고 무서운 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나팔절이 성취되는 것은 지금부터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보게 될 때 그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것이며 주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치리 하실 것이다.
나팔절: 새 시작, 심판, 회개, 용서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일 년 중 가장 기쁜 기간의 시작이 되며 모든 성회들 중 가장 기쁜 것이 될 것이다.

교회의 휴거는 이보다 최소한 7년 전에 발생한다.
교회가 휴거를 받을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다(살전4:16; 고전15:51-52).
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일곱 개의 나팔이 있다(계8장-9장). 이 나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무서운 심판들을 초래한다.

나팔절 요약
(1) 새해 초하루 (2) 과거를 기억하는 날 (3) 심판의 날 (4)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
이날에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사야서 60-61장을 읽는다. 또 주님께서 왕(메시아)으로 나타나시며 전 세계의 통치자로 오르실 그 날에 대한 설교를 한다.

이스라엘의 귀환
1차: 스룹바벨(스1-6장), BC 536년, 535년 성전 기초, 520년 성전 건축 시작, 516년 성전 완공
2차: 에스라(스7-10장), BC 467
3차: 느헤미야(느1-13장), BC 454, 성벽 재건 및 봉헌

ㅇ 대제사장 예수아가 새 희생 단에 첫 예물을 드림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는 바빌론 포로 귀환 허용함(성전 개축을 허용함).
그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빌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약탈한 5,400여 점의 금은 기구들도 줌.
그래서 42,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주위의 성읍들에 정착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희생 제단을 재건하는 것이었다(스3:1-6).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구정(舊正)인 티쉬리 월(七月) 초하루에 주님께 태우는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다(6절 참조).
대제사장인 예수아(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이들이 새로 지은 희생 단에 첫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Jesus)' 즉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다.

ㅇ 에스라가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율법 서를 읽어 줌(BC 454).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생활 이후 귀환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었다(느8:2-3).
이 나팔절은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었다. 8절, 10절 설명
○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요엘 대언자는 주님의 날이 나팔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욜1:14-15; 욜2:1-2).
다니엘서 9장 27절과 계시록 12장 6절은 대환난이 적그리스도가 새로 지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써 시작되며(살후2:3-4) 그때부터 정확히 1,260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패망함으로써 끝이 남을 보여주고 있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3근과

6. 속죄절(The Feast of Atonement): '예수님을 통한 속죄'
(레23:26-32)

휴거 이후의 다음 나팔은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마24:29-31).
그 날에는 어느 사람이나 국가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다.
자기들의 불충성과 자기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됨을 깨닫게 된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절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은 '속죄의 날'이라고 불린다(레23:27).

'속죄'(atonement, At-One-Ment)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용어로 레위기에만도 48회나 나타난다.
신약성경에서는 한 번만 나타난다(롬5:11).
이 말은 '화해하게 하는 것'(reconciliation)으로도 쓰였다. 사실 '속죄'와 '화목'은 같은 말이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과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케 되었다(롬5:10; 골1:21-22).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피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히9:22).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이 속죄일은 율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속죄일을 이야기할 때 랍비들은 '야마'(Yama)를 사용했으며 이것은 단지 '그 날'을 의미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 가장 큰 행사 날이었다. 바로 그 날에 개인뿐만 아니고 전 국가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모세의 율법체계를 지키는 곳마다 욤키퍼(즉 속죄일)를 지켰다.
이 날은 유대인들의 날들 중 가장 엄숙한 날이다.

속죄일의 의미와 중요성은 레위기 16장에 나온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속죄라는 단어가 무려 15회나 나온다.
레위기 16장에는 '피'라는 단어가 적어도 아홉 번 나온다.
'피와 속죄'와 모세의 율법 제도(레17:11)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사59:2).
죄 문제는 속죄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
레위기 16장은 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다루는가를 보여 준다.

제사장
레위기 16장은 10장에 기록된 사건 즉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뜰에서 이 두 젊은이들을 쳐서 죽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목사는 중보자가 아니다).
이 속죄일에 제사장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준비했다.

제사장에게 주신 특별 지침 사항

일 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했다.
그 준비과정에서 먼저 어린 수소를 희생시켜야 했다(레16:6).
제사장은 의복을 입기 전에 몸을 먼저 닦고(레16:4), 목욕 후에 의복을 입고 수소를 죽이고(레16:11)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궁휼의 자리 앞에서 그 수소의 피를 일곱 차례 뿌렸다(14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히7:26-27).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요일3:5).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벧전2:2).
수소의 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위해 희생물로 드려졌다(히9:7).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히9:11-12).

백성
제사장 아론의 희생물 이후의 특별한 관심사는 백성의 죄였다.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하여 두 마리 숫염소가 선택되어 이 의식에서 사용되었다(16:5, 7).
그 중 하나는 백성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서 드려졌고(15-16), 다른 하나는 백성의 죄악을 짊어진 채 피신하는 속죄 염소(scape goat)가 되었다(레16:5-10, 21-22).
속죄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 이 두 마리 염소들의 기사에 담겨 있다.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 정해졌고 다른 하나는 속죄 염소로 정해졌다(레16:8).
주님을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해서 죄로 인한 예물로 드려졌다.
죽임을 당한 염소만으로는 속죄의 완전한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다.
속죄의 예물은 결코 죄를 없이하지는 못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말인 '카파르'는 '덮는다' 혹은 '숨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속죄는 개인의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하나님께 잠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속죄일 의식은 제사장이 두 번째 염소에게 돌아올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레16:21-22).
이스라엘 백성은 죄들을 업은 염소가 광야로 끌려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고 죄악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속죄는 죄악의 용서뿐만 아니고 제거까지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을 따라서 엄숙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레23:27-32).
이 명령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결코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속죄를 위해 한 것이 전혀 없으며 단지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했다.
구원이란 어느 시기에도 결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속죄일에 일을 금하고 죄에 대한 슬픔을 표시한 죄악의 용서에 아무 효과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루를 쉬었다.

"왜 속죄일이 모든 성회들의 순서에서 가장 처음에 오지 않았을까?"
피 흘림을 당하고 피 뿌림을 당했던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은 이집트(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였다.
속죄일은 이집트에서 행한 적이 없다. 그들은 속죄를 위해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속죄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집트 탈출 뒤 그들이 지은 죄들을 정결케 하였다.

속죄일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
우리는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죄를 짓는다.

성회됨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죄의 문제를 더욱더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쉽게 얽어매는 죄(히12:1)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거룩하시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성경말씀도 거룩하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딤후1:9).

참된 유대인이라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방인들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
율법 제도에서 피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팔절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본 땅으로 모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나팔절 다음에 연대적으로 무엇이 오는가? 그것은 당연히 속죄일이다.

스가랴 대언자(슥12:9-11)
10절과 11절의 '애통'은 레16:29-31과 23:27-32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은 요시야 왕이 파라오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슬퍼했던 것과 비슷하다(대하35:20-2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13:1).
'그 날'은 14:1절에 있는 '주님의 날'(the day of the LORD) 과 같은 말이다.
'그 날에'라는 말이 스가랴 12, 13, 14장에만 무려 16회 나온다(12:3, 4, 6, 8, 9, 11; 13:1, 2, 4; 14:4, 6, 8, 9, 13, 20, 21).
예레미야(31:31-37)와 에스겔(36:25-32)은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에 대해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 국가가 속죄되는 날 그 땅의 죄악이 '단 하루에' 모두 제거될 것이다(슥3:9).

죄와 부정한 것에 대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서 열리게 될 그 샘은 '그들이 찔렀던' 메시아의 피의 샘이다(슥12:10).
12:10절의 '찔렀던'과 13:1절의 '샘'은 서로 연관이 있다.

성막과 절기 강해 제33과

이스라엘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배척한 메시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할 때 즉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금이 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침내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7. 장막절(The Feast of Tabernacles):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남'
레위기 23장 33-44절

추석, 추수감사절: 축제와 기쁨이 넘치는 시기이다.
장막절은 여러 면에서 추석과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
이것은 일곱 번째 마지막 명절로서 주님께서 정하신 예정된 기간들을 완성한다.
장막절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된다.
장막절은 하나님께로 모이는 절기로서 칠월 십오일에 시작되어 칠 일 동안 계속되었다(레23:34, 39).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신16:13-15).
한 알의 밀알: 요12:24,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수확이 이루어진다.
장막절은 '땅의 열매들을'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나타낸다.

장막절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거주하는 집을 떠나서 칠 일 동안 텐트와 같은 모습의 초막에서 야영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졌다(레23:42).
초막들은 나무열매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들, 잎이 큰 나무들의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들로 만들어졌다(23:40).
왜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셨을까?
(1) 기억해야 할 시간(신31:10-13)
그 땅의 열매들과 생산품들로 만들어진 그 초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급하게 지은 피난처에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레23:42-43).
장막절은 그분의 백성들이 40년 방황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모든 것을 잘 예비해 주셨는가를 오는 세대들에게 더욱더 새롭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다.
기억하라(신8:2).
그래서 장막절은 유대인들의 연중 명절들 중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다.
기억하라(신4:9; 4:23: 5:15; 6:12; 7:18; 8:11, 14, 18; 9:7; 15:15; 16:12)

그들은 매일 받은 축복들 즉 의복, 음식, 집, 건강, 즐거움 등을 일주일 동안 누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만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광야 사십년 생활은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나게 했다.
그러므로 이 명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언자 이사야의 충고(사51:1-3)
시40:2의 고백

(2) 즐거워할 시간(레23:40)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온다.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기뻐하였다.
죄는 항상 기쁨을 가로막으며 기쁨은 언제나 정결함과 용서 후에 따라온다.
다윗의 예(시51:12)
이 날은 기쁜 날이다(신16:13-15).

장막절은 일곱(7) 번째의 명절로서 칠(7)월에 칠(7)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7)이라는 숫자가 세 번 나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기쁨과 함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큰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려고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의해 성취된다.
이 장막절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는 왕국은 모두의 관심사
바리새인들(눅17:20)
제자들(행1:6)
베드로의 대답(행3:20-21)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달력에 특정한 한 시간을 만드셨다.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의와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유력한 국가가 되어 지정학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땅이 영광의 회복을 체험할 것이다.
스가랴 대언자 14:16-19, 사도행전 1:9-11

이방 민족들이 매년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슥14:16).
그분께 경배하려고 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슥14:17).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쁨(사35:10)

레위기의 주제는 성결이며 '거룩하다'는 단어는 91회나 나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11:44-45; 19:2; 20:7,26; 21:8).

일곱 개의 거룩한 절기들 중 마지막인 장막절이 완결된 후에 마침내 성결함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슥14:20-21
그 왕국시대에는 주님께 대한 성결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이다.
히9:28
그 왕께서 내려오신다(계11:15).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있은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성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계21:1; 5; 22:20-21).

ㅇ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기원전 1045년 7월 15일 장막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봉헌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대하5:2-3; 12-14; 왕상8:1-2).

ㅇ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구약성경의 절기들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
장막절에 오셨을 가능성이 크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아니라 가을의 장막절에 태어나셨음을 보여 준다(10월경).

그분은 유월절(1월14일)에 죽었고 그때 그분의 나이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입증되듯이 서른세 살 반이었다. 이 사실은 그분께서 장막절인 티쉬리월 십오일(7월 15일)에 탄생하셨음을 보여 준다.

우리 주님의 생애에 있었던 대사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던 세 절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장막절인 7월 15일에 탄생하셔서 유월절(무교절 기간)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권능 있게 임하셨다.

이것이 옳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상적인 수태 기간이 사십 주임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하게 12월 25일에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어쨌든지 12월 25일의 성탄절은 이방인의 풍습을 세속화되며 정치와 연합한 타락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 끝 -